

젊은 시어머니

김영강

남편의 장례식 날엔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다. 사월인데도 몹시 춥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장지에 모인 사람들은 우산으로 비바람을 막으며 덜덜 떨고 있었다. 이곳 엘에이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날씨였다. 시어머니는 그 비를 함뱍 맞으면서 자식을 잃은 슬픔에 관속 에라도 따라 들어갈 듯이 몸부림을 쳤다. 미친 듯이 통곡을 했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것이 자식을 잃은 슬픔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따지고 보면 피 한방울 안 섞인 아들 아닌가?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겨우 아홉 살이 위이다. 남편을 묻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에 잠겼다.



경남 마산 출생. 이화여대 국문과 졸업. 미주크리스천 문학, 미주 《한국일보》 단편소설 입상. 남가주밸리한국학교 〈SAT Ⅱ 한국어〉 교사. 〈SAT Ⅱ 한국어 교사지침서〉 발간. 남가주한국학원 최우수교사상 수상. 미주한국문인협회 편집위원장. 미주한국소설가협회 회원.

남편으로부터 생전 처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던가?

그 말 한마디에 스한 나날들을 고뇌 속에서 헤매던 의문을 떨쳐버렸는데,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그가 죽은 후, 그 의문은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 있었다. 남편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 ‘먼 훗날, 늙은 다음에 담담한 마음으로 옛날 얘기 들듯 그 답을 들으리라.’ 하고 미루어 왔던 의문이다. 그러나 그 회답을 영원히 들을 수가 없게 돼버렸다. 서른다섯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저 세상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내가 대학 삼학년 때 한국에 나와 영어 학원 강사로 근무했다. 우수에 잠긴 듯한 신비스러운 표정과 훗칠하게 큰 키, 그리고 유창한 영어, 허름한 청바지에 아무렇게나 윗옷을 걸쳐도 그의 모습은 멋이 있었다. 여학생들간에 그의 인기는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더구나 변호사에 소설가라는 직함까지 붙어 민영구라는 그의 이름은 학원가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나도 그 중의 한 여학생으로서 그를 흠모하기 시작했다. 키가 작고 외모도 변변치 않아, 나는 잘생긴 남자에게는 늘 거부감을 느껴왔는데 그를 만나고부터는 내 마음을 건잡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내세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원망스러워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사랑이라고는 받지도 주지도 못하면서 외롭게 자랐다. 항상 그늘에서 의붓아버지 눈치를 보며 살았다. 내가 열 살 때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재혼을 했다. 아래위로 의붓형제들이 다섯 명이나 있는 높다란 저택으로 처음 들어가던 날 받아야 했던 그 차가웠던 눈초리를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시려온다. 그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피부를 해집고 들어왔으나 나는 그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면서 십 년이라

는 세월을 잘 넘겼다. 그리고 공부에만 전념했다.

나는 그를 만나 처음으로 사랑을 알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밤잠을 못 이루고 뒤척거렸는지 모른다. 물어나게 짙은 어둠 속을 망연히 바라보며 가슴속의 불빛을 그를 향해 밝혀놓고 한마디 표현도 못하고 가슴을 앓았다. 그러던 중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가 내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한국말이 서툴렀기에 우리는 영어를 사용했다. 나의 영어 실력은 학원 내에서도 아주 뛰어난 편이었다. 모든 서러움을 공부로 달랬던 긴 세월의 결실이 내게 기적을 안겨다 준 것이다.

그는 가끔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가 철저하게 한국어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가 따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금 너무나 후회가 된다고 했다. 대학 졸업반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후 일 년도 채 못돼 아버지는 젊은 여자와 재혼을 했다면서 그는 쓸쓸히 웃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사이가 너무 안 좋아 한국으로 피해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의 가슴은 가뭄에 바짝 메말라 있었다. 그 메마른 가슴을 내가 사랑으로 촉촉이 적셔주리라 결심을 했다.

그는 변호사 겸 소설가로, 한국에 나온 주목적은 소설을 쓰기 위한 자료 수집 때문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다. 허나 그의 말을 빌리자면, 변호사는 이미 포기를 했고 아직 소설가가 된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교 때 쓴 글이 선생님의 눈에 띄어 어느 책에 실린 적이 있어, 그것이 와전된 것이었다. 계속 글을 쓰고 있기는 하나 출판사와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아직 발표가 된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꼭 이름 있는 작가가 되겠다고 했다.

결혼 말이 오가게 됐을 즈음에 나는 모든 사실을 집안에 알렸다. 그들에게 나라는 존재는 워낙 관심 밖이라 반대고 찬성이고 없었다. 십 년이라는 나이 차도 문제 삼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는 혼자만의

삶을 살았기에 결혼도 예외는 아니었다. 혼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저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모든 시련을 참고 묵묵히 견뎌온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항상 모든 일을 잘 처리하며 앞길을 개척하는 아주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 착각하고 있었다. 온갖 서러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나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 많은 나날들을 눈물로 지새웠지만 그들은 이런 나의 마음을 조금도 몰랐다. 어머니가 가슴 아파할까봐 나는 서러움을 더 꾹꾹 싸매 놓았었다. 그가 계약 기간이 끝나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즈음에 나는 졸업을 했고 그를 따라 미국 땅을 밟았다. 떠나기 전 날 밤, 어머니는 내 손을 붙들고 울면서 말했다.

“넓은 세상에 가서 더 많이 공부해 네 뜻을 펴고 살아라.”

미국에 도착한 첫날, 시아버지에 비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너무 젊어 나는 깜짝 놀랐다. 젊은 여자와 재혼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그렇게 젊은 줄은 몰랐다. 시아버지보다는 남편과 더 어울려보였다.

시어머니는 키도 크고 체격도 컸으며 부리부리한 눈에 코도 크고 입술도 두툼했다. 가무스름한 피부에 광대뼈도 나온 듯해, 어찌 보면 좀 억센감을 풍기기도 했으나 개성 있는 화려한 인상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젊은 시어머니를 남편은 가정부처럼 취급하는 것이었다. 물론 어머니라는 호칭도 쓰지 않았다. 시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떤 때는 그녀를 무시하는 행동도 서슴없이 했다. 두 남자가 너무 쌀쌀맞게 대해 도리어 내가 그녀에게 관심을 쓰며 따듯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다. 시아버지가 일터로 나간 후, 남편은 글을 쓴다고 서재에 박혀 꼼짝을 안 해 나는 주로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자칫 잘못하면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도 있는 사이라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어머니라는 호칭도 서슴없이 나왔다.

시어머니는 힘이 장사였다. 남자들도 하기 힘든 바깥일도 잘 해냈다. 정원사가 미처 치우지 못하고 한쪽으로 모아놓은 굵은 나뭇가지들도 손으로 척척 꺾어서 쓰레기통에 차곡차곡 담고, 무거운 화분들도 잘 들어 날랐다. 음식솥씨 또한 뛰어났다. 그녀는 식구들의 입맛에 맞게 온 정성을 들여 반찬을 만들었다.

한데, 그녀는 미국 온 지가 십 년이 훨씬 넘었다는데도 영어는 거의 한 마디도 쓰지 않았다. 히스피닉 정원사한테도 한국어를 사용했고 그들도 낯낱 웃으며 용케 알아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억양이 아주 심한 경상도 사투리를 썼다. 한국에 있을 때는 주위에서 듣는 경상도 사투리가 참 정겹고 구수했는데 시어머니가 사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 참으로 무지막지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다.

시아버지는 규모가 큰 미국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 터인 바다를 한눈에 만끽할 수 있는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고급식당이었다. 요리사를 비롯해 일하는 사람들이 열 명이 넘었다. 결혼하겠다고 내가 그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의붓아버지의 첫마디는, 뭐하는 집안이나고 물은 것이다. 식당을 한다고 했더니 ‘시익파—아—양’ 하고 목청을 높이며 못마땅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지만, 한국에서 생각하던 그런 식당이 아니었다. 시아버지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규모가 점점 커져 얼마 전부터는 큰조카가 참여를 했다고 한다. 남편은 일체 관여를 안했다. 남편은 그저 서재에 박혀있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남편의 서재는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소파는 물론이고 자그마한 식탁에서부터 침대까지 있었다. 그리고 널찍한 화장실도 딸려 있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소설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아버지의 반대로 붓을 쥐고 변호사가 되었으나, 글을 쓰고 싶은 욕망을 버릴 수가

없었다. 잘 닦여진 변호사의 길을 즐겨 걸을 수도 있었건만 그 길은 그가 갈 길이 아니었다. 글은 그냥 취미로 쓰라는 아버지와 또다시 대 전쟁을 치렀지만 그는 아버지를 거역했다. 글에만 매달려 글만 쓰면서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죽기살기로 매달려도 좋은 글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그냥 취미로 써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였다. 결국은 아버지가 손을 들고 말았고, 그는 계속해서 글공부를 하면서 작가의 문을 수없이 두드려 보았으나 그 문은 열리지를 않았다. 결혼이라도 했으면 하는 아버지의 바람을 저버리고 그는 소설의 소재도 얻을 겸 서울에 있는 어느 학원과 계약을 맺어 한국엘 나왔고, 그리고 우리는 운명적으로 만났다.

미국에 발을 디딘 지 두 달이 돼갈 즈음이었다. 하루는 남편이 일 때문에 뉴욕에 갈 일이 생겼다면 홀쩍 집을 떠났다.

“아니 지 색시를 집에 갖다 놓고 이럴 수가 있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 혼자 홀쩍 나가뿌리모 니는 우짜라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도는 방랑벽이 결혼을 하고도 그대로니 이 일을 우짜노? 정말 큰일이다. 큰일이야.”

시어머니는 그가 아주 사라져버리기라도 한 듯이 안절부절못했으나 시아버지는 의외로 침착했다.

“곧 들어올 테니 걱정 마라. 그리고 차차로 고쳐질 거야.”

시아버지 말대로 남편은 사흘 만에 집엘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듯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 갑다. 니가 있어 정말 다행이다. 난 또 옛날 모양 몇 달을 안 더러오른 우짜노 하고 마이 걱정했다 아이가.”

사흘 만에 들어온 것이 무슨 기적이나 되는 듯이 기뻐 야단을 하다가 그녀는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낱두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참, 내 팔자도 기구하지 기구해.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이십 년이

나 우인 남자한테 시집을 왔으니 이 무신 팔잔지 모리겠다. 느이 시아버진 나를 닭 보듯 한단다. 원, 무슨 남자가 그리 비리비리한지…… 그래도 속상할 때, 영구만 치다보면 그만 내 맘이 봄눈 녹듯 다 녹아내리고 했는데, 어디 집에 붙어 있어야 말이지. 소설가가 될 끼라고 지 아버지랑 실랑이를 할 때, 내가 속 썩은 거는 말도 못한다. 집에 붙어 있으려나 하면 후딱 뉴욕으로 가빠리고, 눈 빠지게 기다리도 오지도 않고, 또 서울 가서도 소식 한 자 없고. 하여튼 영구 때때 내가 애간장 태운 거는 말도 못한다. 전화통이 울릴 때마다 혹시 영군이 하고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밤중에도 문소리에 귀 기울이느라고 잠도 깊이 못 잤다 아이가. 이제 새식구가 들어와 한시름 놓는가 했더니 방랑벽은 여전하니, 지금부터는 니 책임이 크다.”

할말 안할말을 분간을 못 하는 것인지 너무 솔직한 것인지 도저히 모를 일이었다. 나와는 딴 세상에 사는 여자 같았다.

그래도 남편은 소설 때문에 취재를 하러 갔었다는 얘기는 해주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도 따라 가면 안 돼요?’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왔으나 그냥 고개만 끄떡였다. 그 후에도 그는 자주 집을 비웠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는 반드시 들어왔다.

집 밖에서 떠도는 것, 그것은 그의 생활의 일부였기에 결혼을 하고도 고쳐지지가 않는 것이었다. 그래도 시어머니 말대로 몇 달씩 집을 비우지 않는 것만으로 나는 위로를 했다. 아내와 집안 식구들에겐 그렇게도 무책임하게 굴면서 학원 강사 시절에는 어떻게 그 일을 해냈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는 준비가 철저하고, 아주 잘 가르치는 강사였다.

시아버지는 이렇다 할 아무런 말이 없었다. 부자간에도 통 대화가 없었고 서로 얼굴을 대하는 적도 별로 없었다. 나는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해 시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시어머니 말대로 나는 이 집안의 새식구가 되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 같지가 않았다. 왠지 불편했다. 해가 질 무렵, 저녁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만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내겐 돌아갈 집이 없었다.

차츰차츰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을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시아버지는 내게 레스토랑 일을 배우라고 하지는 않았다. 나는 어머니 말씀대로 우선 공부부터 시작해야겠다고 느꼈다. 이러한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하루는 시아버지가 학비는 얼마든지 대줄 테니 공부를 계속하면 어떻겠냐고 내 의향을 물었다. 나는 떨 듯이 기뻐으나 학교는 좀 뒤로 미루어야만 하는 일이 터지고 말았다.

바로 임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임신과 학교 공부를 병행할 용기는 도저히 없었다. 남편은 별 내색이 없었으나 시아버지는 정말 기뻐했다. 공부는 다음에 하고 애부터 낳으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쓸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네 남편은 언제 작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렇게 만날 글 쓴다고 매달려 있으니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네가 최선을 다해서 밀어주어라.”

갑자기 그는 유언 비슷한 말을 했다.

“식당 일은 큰조카한테 맡겨놓으면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잘해 나갈 거다. 내 살아생전에 그 녀석이 쓴 소설책을 볼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구나. 언젠가는 꼭 성공을 하리라고 이 애비는 믿는다.”

그리고 배가 차츰 불러오기 시작한 그 몇 달 후, 시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해 이 세상을 떠났다. 정말 뜻밖의 사고였다. 술하고는 거

리가 먼 시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프리웨이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는 그 자리에서 숨진 것이다.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의 시아버지인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나 한 듯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처리를 해 놓았었다. 상상하지도 않았던 여러가지 보험을 들어 놓았고 비즈니스 문제도 완벽하게 마무리가 지어져 있었다.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배분도 완전하게 금을 그어 놓았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는 갑자기 부자가 되었지만 생활 자체에는 변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남편에게서 여러가지 변화를 발견했다. 첫째 말을 잃어버린 점이다. 워낙에 말이 없는 성격이라 예사로 넘겼으나 최근에는 여느 때와는 달랐다. 글을 쓰지 않을 때는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장례식 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 그의 차가움에 소름이 끼쳤는데 모든 절차가 다 끝난 후부터 그는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친 듯이 글을 썼다. 저러다가 정말로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스러울 정도였다. 내가 자신의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았다. 배부른 것이 확연하게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는 나를 조금도 배려하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말대로 내가 그에게 좋은 글을 쓰도록 밀어주는 것은 그를 내버려두는 것이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그가 훌쩍 집을 떠나버렸을 때는 갑작스런 죽음 앞에 어디 여행이라도 떠나 오래도록 안 돌아오면 어쩌나 하고 나는 마음을 졸였다. 아니 아주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허망감에 울고 또 울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그가 사라져버릴 것 같아 내 눈은 그의 뒤통수를 따라다녔다.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을 땐, 가슴이 옥죄어 숨통이 막히는 듯했다. 문소리에만 귀를 곤두세우고 어두운 거실 구

석에 쭈그리고 앉았다가 그의 기척이 나면 나는 얼른 방으로 들어와 자는 척을 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나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고 또 외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꼭 돌아온다는 확신이 생긴 다음에는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다. 아니, 그가 집에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마음이 편한 적도 있었다.

시어머니에게 그는 내가 민망할 정도로 쌀쌀맞게 대했다. 그럴수록 그 불뚝은 내게로 튀었고 남편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구는 것이 다 내 책임이라고 했다. 남편 앞에서는 입 다물고 있다가 꼭 남편이 서재에 틀어박혀 있을 때나 외출을 했을 때, 나를 들볶는 것이었다. 최선을 다해 잘해주면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고 시어머니 대접을 깎듯이 했으나 다 허사였다. 내가 임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녀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허전한 마음을 내게 화풀이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았다. 어쨌든 나는 모든 것을 꼭 참고 아기 낳을 날만 기다렸다. 아기를 낳으면 집안 분위기가 좀 밝아지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가 우리와는 계속 같이 살지는 않을 테이니, 조금만 참기로 했다.

한데, 이상하게도 나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에서 뭔가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깨름칙한 느낌을 가끔 받곤 했다. 그러나 그녀가 남편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 내 가슴을 조일 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다. 침묵의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내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눈을 떠보니 옆에 있어야 할 남편이 없었다. 서재 문을 살짝 열어보고 남편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그대로 나올

참이었는데 뜻밖에 시어머니의 말소리가 문틈으로 새 나왔다. 남편은 컴퓨터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 앉아 있었다. 꺾아 놓은 사과가 누렇게 변해 있었다. 소설을 쓸 때, 내게는 서재에 들랑거리지 못하게 하면서 왜 그녀의 출입을 막지 않았는지 이상했다. 그것도 한밤중에.

그 며칠 후, 어둠이 바닷물처럼 온 집안을 침몰시키는 한밤중이었다. 뭔가 시커먼 물체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소름이 온몸을 훑으며 살갗이 도르르 일어섰다. 깜짝 놀라 아악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고 갑자기 저 깊은 나락의 밑바닥, 아주 컴컴한 곳으로 몸 전체가 굴러 떨어지면서 무서움이 온몸을 파고들어 나는 심하게 떨고 있었다.

시커먼 물체는 내 앞에 우뚝 섰다. 아무리 일어나 보려고 애를 써도 손가락 하나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소름이 확 끼치면서 내 몸속의 알맹이가 홀리딩 빠져 나가버리는 듯했다. 빈껍데기 뿐인 허물만 남은 내가 침대 위에서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식은땀이 나면서 숨이 찼다. 나는 숨을 세차게 몰아쉬면서 시커먼 물체가 내게 달려드는 것을 피하려고 한참을 몸부림을 쳤다. 옆에 누운 남편을 깨워보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손가락 하나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살며시 눈이 떠졌다. 캄캄한 밤중은 아니고, 회색빛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그런데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섬뜩했다. 무슨 물체가 침실 밖으로 획 사라지는 것이었다. 분명히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써야 할 판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부리나케 그녀의 침실을 향했다. 침실 문은 열려있었다. 살그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곧하게 자고 있었다.

모로 누운 채 벽을 향해 코를 달달 골고 있었다.

그런데 왜 내가 한밤중에 시어머니의 침실에 와 있지?

나는 아들을 낳았다. 갓난아이인데도 남편을 빼 박아 놓은 듯 그대로 뒹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붙들고 수고했다면서 큰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좋아서 야단이었다. 들들 볶을 때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했겠느냐고 부산하게 수선을 떨었다. 아기를 들여다보면서도 계속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이고, 우찌 이리 지 아배하고 똑 같노. 내가 지금 꼭 영구 안고 있는 기분이다. 아이구 징그러버라.”

아기를 안고는 남편을 안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 모양이었다. 그리고 생전 처음 신기한 것이나 보는 듯 아기의 고추를 들여다보며 탄성을 질렀다.

“아이구! 갓난아아 고추가 와 이리 크노? 이것도 지 아배 닮았는가 배”

그러면서 아래에 늘어진 부분을 밑에서 위로 쓱쓱 쓸어 올리면서 손은 계속 아기의 사타구니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확 쳐들고 내 눈을 뻔히 들여다보면서 정색을 하고 물었다.

“그런나? 영구 것도 이리 크나? 정말로 이리 크나?”

나는 깜짝 놀랐다. 크나? 크나? 하는 그녀의 목청 역시 어찌나 큰지 귀청이 찢찢 울렸다. 그냥 우스개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기의 그것을 자꾸 만지작거리려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남편 것까지 들먹이면서 심각한 얼굴을 해 그녀가 참말로 이상했다. 나는 얼굴을 붉히며 어머니는 별 걸 다 물어신다면서 계면쩍은 웃음을 띄우고 아기를 뺀어 안았다. 눈빛에 뭔가 한이 서려 있는 것 같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 말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며

칠 전에 있었던 일도 다시 생각이 나는 것이었다.

아기 낳고, 병원에서 사흘을 지내고 집엘 온 날이었다.

“어젯밤, 한밤중에 무신 발자국 소리가 부엌 쪽에서 들리더라. 도둑이 들은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기 아이고 영구가 물먹으러 나왔는갑더라. 그런데 그냥, 영구가 내 방으로 쿵쿵 걸어 들어오는 거 같아서 어찌나 가슴이 떨리는지 혼이 났다.”

말 끝부분에 가서는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목소리까지 떨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려 죽겠다는 듯이.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와 주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듯이. 영구라는 이름을 부를 땐, 아련하게 꿈을 꾸는 듯한 그녀의 눈빛이 참 묘했다. 예전에도 감지한 바 있는 그런 눈빛이었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냥 무심히 지나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았다. 이것저것 마음에 좀 걸렸지만 대수롭잖게 넘겨버린 일들을 다시 돌이켜보니 시어머니의 마음 깊숙한 곳에 깔려 있는 이성애에 대한 그리움의 대상이 남편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되었다.

또 육체적으로도 건장한 의붓아들을 한 남성으로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더구나 시아버지가 자기를 닭 보듯 한다면서 내게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지 않은가?

젊은 후처와 의붓아들…… 영화에서만 전개된다고 생각했던 줄거리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단 의심의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니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었다.

남편이 한국에 나온 것도 젊은 그녀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러한 세 사람의 갈등 속에서 탈피하려고 남편은 나와 결혼을 했을까? 그럼 난 남편에게 뭐였던 말인가? 피난처였을까?

그러다가 갑자기 시아버지의 노한 얼굴이 떠올랐다.

혹시 그녀와의 관계를 눈치 채, 부자간의 사이가 극도로 나빠진 것

이 아닐까?

그는 아버지와의 사이가 안 좋아 한국으로 피해 왔다고 분명히 말했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음주운전도 커다란 의문이 되어 내 앞을 가로막았다.

시아버지가 죽은 후, 남편이 그토록 괴로워하며 말을 잃어버린 것도 어떤 죄책감 때문이 아닐까?

아기를 낳으면 집안 분위기가 좀 밝아지려니 했는데 어둠의 그림자는 더 짙게 스며들고 있었다. 자기와 똑 닮은 아들을 낳았는데도 남편은 별로 좋아하는 기색이 없었다. 관심 있게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와 아이는 그의 마음에서 완전히 밀어내버린 것 같았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후부터는 집을 떠나서 며칠씩 안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저 서재에만 틀어박혀 살았다.

혹시, 소설의 줄거리가 남편과 그녀와 시아버지에 얹힌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나를 괴롭히기도 했다. 집안 청소는 항상 그녀가 하기에 그때마다 서재로 따라 들어가 도와주는 척하며 프린트해 놓은 것이 있나 하고 유심히 살폈으나 소설의 흔적은 없었다. 글을 쓸 땐, 사람이 얼씬거리는 것조차도 싫어해 나는 남편의 컴퓨터 화면을 훑쳐볼 기회가 없었다. 컴퓨터를 몰래 열어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남편은 내가 말을 시키는 것조차도 귀찮아했다. 애초부터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짙어져 가고 있었다. 메말라 있는 남편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리라던 내 마음까지 바짝바짝 타들어 갔다.

나는 아기한테 시달려 잠을 제대로 못 자 늘 피곤에 절어 있었고, 아기 자는 시간에 좀 자려고 잠을 청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잠이 들려고 하다가 그냥 깜짝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곤 했다. 어떤 때

는 괜히 눈물이 났다. 그녀와 남편이 맞부딪칠 때는 그들의 낯을 살피느라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차라리 남편이 어디라도 훌쩍 떠났다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서서히 병이 들어가고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서재에서 꿈쩍을 않고 가족과는 동 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으며, 그리고 나는 자주 가위에 눌려 혼자 신음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또다시 가슴이 짓눌리는 압박감에 숨을 헐떡이다가 나는 벌떡 일어났다. 역시 남편은 글 쓰느라 밤을 꼬박 새는 모양이었다. 재빨리 서재로 가 보았다. 그냥 한번 살짝 문을 열어보고 싶었다. 그런데 문이 잠겨있었다.

그 순간, 왜 내 가슴이 그리도 심하게 철렁 내려앉았을까? 그리고 왜 나는 또 시어머니의 침실로 부리나케 향했을까?

그녀의 침대는 비어있었다.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감고 벽에 기댄 채 심호흡을 했다.

서재 문을 쿵쿵 두드려 볼까?

남편과 그녀가 벌거벗고 뒤엉켜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며 숨을 크게 내쉬었다. 핏줄이 팽팽하게 곤두서며 금세 툭 끊어져질 듯한 절박한 긴장감이 온몸을 엄습했다. 숨이 막혀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 정원으로 나갔다. 찬 공기를 쉼없이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그런데 저쪽 동의자에 뭔가 허연 물체가 보였다. 눈을 크게 뜨고 유심히 살펴보니 시어머니였다. 순간, 슬픔인지 기쁨인지 모를 뜨거운 덩어리가 목구멍으로 확 치솟았다. 나는 한참을 선 채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항상 단정하게 틀어 올리던 머리가 산발로 풀어 내려져 있는 그 뒷모습이 흡사 귀신 같았다.

한밤의 허리가 휘어지도록 홀로 앉아 무슨 생각을 저렇게 골똘히 하고 있을까? 서재 문을 두드렸으나 잠겨있어 정원으로 나온 것일까? 가슴속에 타오르는 욕정의 불길을 끌 수가 없어 찬 공기를 쐬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미동도 않은 채 그림처럼 앉아 있었다. 아는 체를 하려다가 나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왔다. 서재 문을 다시 한번 살며시 비틀어 보았으나 여전히 잠긴 채였다.

왜 서재 문을 잠가 놓았을까? 그녀가 느닷없이 들어와 남편을 방해해 잠가 놓은 것일까? 그렇다면 그녀는 왜 한밤중에 남편 서재엘 가는 것일까? 지난번 모양 밤참을 핑계로 여전히 서재에 들락날락 한단 말인가? 한 지붕 아래서 내가 모르는 일들이 한밤중에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가끔 살짝 문을 열어보는 것이 싫어서 잠가 놓았을까?

슬픔이 온몸을 휩싸며 눈물이 났다. 남편의 넓은 가슴에 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다. 뼈 속까지 파고드는 외로움과 허전함이 몰려오면서 무심증이 엄습했다. 소름이 짹 끼쳤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상시와 똑같이 한국식 아침을 준비해 놓고 나와 남편을 재촉했다. 나는 남편을 뵈히 바라보며 물었다.

“왜 어젯밤에는 서재 문을 잠가 놓았어요?”

남편은 의아한 얼굴로 그제 무슨 말이나고 반문했다. 서재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가 들어가려고 손잡이를 틀었는데, 안 열리던데요?”

“그 이상하네. 저절로 잠겨졌나?”

그는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아무 반응이 없는 그 표정은 우리의

대화에는 관심이 없는 듯했다. 간밤에 꿈을 꾸었나 하고 멍한 기분이 된 나는 다시 골똘히 생각을 했다. 무거운 침묵 속에 밥알이 모래알 처럼 입안에서 걸돌았다.

그럼 노크를 하지 그랬어.

자는 줄 알았어요.

아냐. 나 안 잤어. 밤새 글 썼는 걸.

이런 대화라도 오고갔으면 내 맘이 조금은 편안해졌을까?

남편과의 대화는 항상 그가 중간을 잘랐기에 나는 그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그녀랑 언제까지 한집에 살아야 한단 말인가? 집은 시아버지의 유언장에 따라 남편이 물려받았다. 젊은 그녀는 넉넉히 자립을 할 수 있다. 남겨준 재산만 가지고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 아기를 핑계 삼아 남편과 같이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언젠가 남편에게 그녀의 문제를 슬쩍 비친 적이 있다. 내 이러한 마음이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며 그녀를 위하는 척하고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당장 아기 때문에 그녀가 없으면 안 되는 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는 대수롭잖게 말했다. 사람을 하나 구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올랐으나 밖으로 내 뱉지는 못하고 그의 표정을 살피는데, 남편 역시 그녀와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나를 괴롭혔다.

남편이 그녀랑 같이 외출을 하는 것도 그렇게 싫었다.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도 무조건 싫었다. 나도 따라 가고 싶었다. 그들을 내보내놓고 시계만 보며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시간을 재곤 했다. 조금이라도 늦어질 땐 그만 숨이 막히는 것 같아 두 손

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다.

같이 외출을 할 때, 아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뒷좌석에 앉아야 하는데도 그녀가 앞자리에 남편과 나란히 앉는 것이 싫었다. 뒤에 앉아 그들의 뒤통수를 바라보는 것조차도 괴로웠다.

한번은 남편의 부재중을 틈타 그녀에게 이제는 자립을 해 재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을 던지시 꺼냈다가 혼이 났다.

“그 몸에 아아 하나 갖고도 찢찢 매면서, 내가 없으면 영구가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을 기다. 또 집안일은 다 우짜고.”

언제나 시어머니에게는 남편이 일 순위였다.

“내가 나간다 케도 붙잡아야 할 형편에 뭐 내보고 나가라고? 나야 나가면 편하고 좋지. 나야 충분히 자립할 수 있응께. 한테 니는? 내가 나가면 니 혼자 살림할 수 있겐나? 어렵도 없다 어렵도 없어. 내가 니 속셈을 모릴 줄 아나?”

괜히 말만 꺼내놓고 그녀의 강한 반발에 당하고만 있는데 속셈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컹 내려앉았다.

“나를 내쫓고 사람을 하나 쓰든 된다 이거 아이가?”

순간 나는 후유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시어머니의 말은 끊이지 않고 줄줄이 이어졌다.

“사람을 쓰든 누가 내처럼 해줄끼고? 그리고 돈은 또 울매나 비싼지 니 알기나 하나? 미국을 몰라도 우찌 그리 모리노? 내는 지금 완전 무료 봉사하고 있닥고.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고마워서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니가 내한테 그라모 못 찢다. 내는 영원한 내 식구로 생각하고 있는데 니는 그기 아인가 보구나.”

급기야는 눈물까지 흘리며 어찌나 서운해 하는지 나는 도리어 시어머니를 위로해야만 했다. 혹 떼려다가 도리어 혹 하나 더 붙인 셈이 됐다.

사실, 따져보아도 그녀의 말이 맞다. 그녀는 재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하면서 서럽게 울었다. 남편 곁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하는 시어머니의 심정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떠나야 할 그녀이기에 참고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가는 대신 그녀의 방을 기웃거리는 버릇이 생겼다.

어머니가 자기를 한 남성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 알아요?

어느 날, 나는 이런 의문을 남편한테 던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물론 육체적인 상상을 한 점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다. 그리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남편의 입으로 확인을 받고 싶었다. 그러나 남편도 그런 눈치를 옛날부터 채고 있었다고 하면 어찌나 하고 겁이 났다. 또 나 자신이 그런 더러운 상상을 한 것이 부끄러워서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니 그가 나와 결혼을 한 것도 그녀로부터의 끈적거리는 시선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물으나마나한 질문이 아닌가? 지금은 물어버리자. 이답에 늙은 후에, 담담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물어보자.

남편의 침묵이 시커먼 연기가 되어 나를 질식시키는 가운데 일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아기는 건강하지가 못해 늘 병약한 모습이었으나 남편은 무심한 채 소설에만 전념했다. 어릴 때부터 참는 데는 이력이 나 그냥 꺾꺾 참고 살았다. 내 몸도 날이 갈수록 허약해져 아 기조차 안을 기운이 딸린 터라 시어머니는 없으면 안 될 존재로 점점 더 자리를 굳혀갔다. 그리고 두려운 존재로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웬지 그녀가 무섭기까지 했다. 쳐다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두근 했다.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남편 역시 두려웠다. 시어머니와 둘이 작당을 하여 언젠가는 나를 내쫓을 것만 같아 무서웠다. 가슴이 조마조마해 그들과 눈을 마주치기조차도 겁이 났다.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 한 가운데 얹혀 있는 것 같아 늘 답답했다. 한바탕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진작에 그녀를 내보냈어야 했을 것을, 그러지 못한 나는 정말 바보였다.

드디어 소설을 끝냈는지 남편은 탈고한 소설을 들고 바깥으로만 나돌았다. 내 병은 점점 더 깊어갔다. 얼굴엔 기미까지 끼고, 몸은 날이 갈수록 바짝바짝 메말라 마치 땅 바닥에 버려진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 같았다. 반면에 시어머니는 점점 세련되어 얼굴은 떠오르는 보름달처럼 흰해졌고 몸에 피어나는 꽃처럼 화사해졌다. 그녀가 나보다도 남편과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짝처럼 보였다.

애를 낳은 후에 공부를 계속 하겠다던 내 결심은 그녀로 인해 물거품처럼 사라진 지 오래고, 나는 그저 아기에게만 매달려 살았다. 내가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몸을 지탱한 것은 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에, 마침 어머니가 미국을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내가 미국에 온 후, 어머니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의붓아버지에게 젊은 여자가 생겨 이혼을 당한 것이었다. 그 후, 어머니는 자그마한 양품점을 경영하면서, 나보고 한번 다녀가라고 했으나 시어머니와 남편을 단둘이 두고 집을 비운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 나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집을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부둥켜안고 울었다. 그리고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도 눈물을 흘렸다. 나도 왜 그렇게 눈물이 자꾸 나오는지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 동안 아무에게도 말을 못해, 차곡차곡 쌓이기만 한 서러움이 그냥 봇물처럼 쏟아졌다.

어머니는 나를 한국엘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 내 꼴이 이렇게 되도록까지 어떻게 보고만 있었느냐고 어머니는 남편에게 그 책임을 돌리면서 서울엘 데리고 나가야겠다고 강경하게 나왔다.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엘 갔었는데, 나의 병명은 우울증이였다. 신경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으니 안정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였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면서 나의 회답을 유도하는 의사에게 나는 함구했다. 나만 아는 그 비밀은 죽을 때까지 나만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초조한 가슴을 안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왜 나는 병원에 가볼 생각을 못 했을까?

사실 나는 어릴 적부터 병원 출입은 거의 안 하고 살았다. 크게 아픈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몸살감기 같은 것은 그냥 아무도 모른 채 혼자 앓으면서 넘겼다. 그만큼 병원은 나와는 연관이 없는 곳이였기에 내 삶에 병원은 없었다.

나는 남편에게 미안해서 어머니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처방해준 약 먹고 병원에 다니면서 미국에서 안정을 취하면 된다고 했더니 어머니는 내게 소리를 질렀다.

“네가 이러니까 대우를 못 받고 사는 거야. 그 똑똑하던 애가 왜 이렇게 바보가 돼버렸니? 너 이대로 말라 비틀어져 죽고 싶어?”

남편과 시어머니가 들으라는 소리였다. 어머니는 나를 끌고라도 한국에 데리고 갈 기세였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데리고 가면 제대로 쉬지를 못하니 두고 가라고 했다.

아기를 두고 가라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그녀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우면서 아기의 고추를 만지작거리던 커다란 손 생각이 나 아찔하니 헉기증이 났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단둘이 남겨두고라도 나는 어머니의 뜻에 따르기로 결론을 내렸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일단 결정을 하고 나니 마음이 담담해졌다. 이대로 말라 비틀어 죽기보다는, 어떤 방도든 간에 그들을 한번 떠나보는 것이 나를 위해 최선의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에 도착한 후 바로 나는 어머니를 따라 병원에 가서 종합 진단을 받았다.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시 우울증 증세 외에는 별 이상은 없었다. 어머니는 혹시나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던 모양인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내게 온갖 정성을 쏟았다. 옛날엔 주위의 시선 때문에 내게 눈길 한번 주지 못했던 어머니였다.

“너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라 기절할 뻔했다. 너 얼굴이 어쩜 그렇게도 못쓰게 됐던지…… 시어머니가 마나님 같고 너는 꼭 식모 같더라.”

어머니는 또 눈물이 글썽해지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식모 같다는 어머니의 말에 나는 웃었다. 얼마 전, 화장실이 고장 나 수리공을 불렀는데 그 사람도 시어머니를 집주인으로 보고, 나를 메이드로 보았었다.

담담해졌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그게 아니었다. 한국엘 도착한 첫날부터 밤마다 나는 상상에 시달렸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은근 슬쩍 안부를 묻는 체하며 그들의 동정을 살피고 싶었으나 꼭 참고 있었는데 뜻밖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무나 반가워 가슴이 뛰었다.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드디어 책이 나오게 됐다면 서 그는 흥분했다. 그리고 따뜻한 음성으로 내 건강을 걱정했고 아기의 안부도 물었다. 남편의 한마디에 바짝바짝 타들어가던 가슴이 축축이 젖어왔다. 그리고 단비는 계속 내렸다.

책이 빛을 보게 되어 이제야 마음 문이 열린 것일까? 아니면 내가 자기 걸을 떠나고 나니 회개를 한 것일까? 이럴 줄 알았더라면 진작에 한번 떠나볼 걸 그랬지?

갑작스레 변한 남편의 태도에 어리둥절했으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쁨이 되어 내 가슴에 차올랐다. 입맛이 돌아와 밥을 달게 먹었고 잠도 잘 잤다. 남편과 그녀와의 사이를 괜히 의심했나 싶어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내가 그 동안 자기에게 너무 무심했어. 자기 얼굴이 그렇게 못 쓰게 된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말야. 정말 미안해. 어쨌든 만나서 얘기할게. 할 말이 많아.”

너무 말이 없어 속상했는데 할말이 많다고 하니 웃음이 나왔다.

그 동안 아껴 두었던 말을 한꺼번에 할 모양이지? 그 말속에 혹시 내가 궁금해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까?

“아기도 잘 있지? 생각하면 할수록 나도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내가 내 아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지……, 소설 때문에 그 땐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나봐.”

아기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의 냉정함에 가슴이 저려서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지만 나는 한 마디도 불평을 않고 꺾꺾 참았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한국에 나온 후, 아기도 조금씩조금씩 살이 붙으면서 그 비리비리하던 모습이 부들부들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기를 너무나 예뻐했다. 어머니가 경영하는 양품점에 아기를 데리고 나가면 손님들이 다들 아기에게 한마디씩 말을 걸면서 미소를 띄웠다. 아기도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그들을 따랐다.

그의 따뜻한 말들이 봇물이 되어 나의 우울증도 말끔하게 씻겨지고 있었다. 처방 약이 따로 없었다. 나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갈

즈음 그는 내게 빨리 오라고 재촉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고싶다고 했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정말 보고싶다고 하는 그의 목소리가 떨려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들어보는 사랑의 고백이었다.

결혼 전에도 그는 내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 체념을 하면서도 나는 그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고 또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다. 항상 초조한 마음이었다. 조금이라도 내게서 눈길이 멀어진 듯하면 그만 그가 나를 떠나버릴 것 같아 불안했다. 아니 언젠가는 그가 꼭 내 곁을 떠날 것 같은 생각이 늘 가슴 밑바닥에 깔려있었다. 나보다 예쁘고 늘씬하고 집안 좋은 여대생들도 그를 좋아했기에 자신이 없었다. 그가 다른 여자와 이야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 내 맘을 들킬까봐 그들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다.

그 중에서도 그와 같은 학원 강사였던 유 선생님에겐 특히 더 그랬다. 빼어난 미모에 매력적인 미소, 온화하면서도 적극적인 성격에 화술 또한 뛰어나, 학원가에서는 민영구 못지 않게 인기가 높았다. 그녀에겐 가르치는 재능이 있었고 사람을 끄는 어떤 힘이 있었다. 한테 그녀가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만 천길만길 낭떠러지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기분을 맛보았다.

한테 어느 날, 나는 유 선생님이 결혼한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주위의 친구들은 다 아는데 왜 나만 몰랐단 말인가? 그도 알고 있었을까?

항상 무덤덤한 그에게 나도 무덤덤한 척하며 물었다.

“난 유 선생님이 결혼 안하신 줄 알았어요. 선생님은 아셨어요? 유

선생님 결혼하신 거.”

그는 대수롭잖게 말했다. 애가 둘인데 아직 몰랐느냐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선생님이랑 친한 것 같아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는 씩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다.

“그래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잤어?”

너무나 행복했다. 천하를 다 얻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낸 것이다. 그것이 그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설레는 가슴을 안고 잠을 설쳤다. 빨리 달려가서 그의 품에 안기고 싶었다.

그러나 정확히 그 열 시간 후, 나는 남편이 죽었다는 비보를 받았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실성한 사람 같았다. 아침 준비를 다 해놨는데도 기척이 없어 찾아 봤더니 남편이 죽은 듯이 서재 마룻바닥에 누워 있더라는 것이다. 가까이 가 보았더니 정말로 죽어 있었다는 것이다. 까무러칠 뻔하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옆집으로 뛰어가 사람을 불렀고, 남편은 이미 싸늘한 시체로 식어 있어 앰블런스가 도착해서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그 편안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는 자꾸 괴상한 상념 속에서 시달렸다. 그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무런 병이 없는 남편이 자다가 그대로 죽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의 정사장면이 영화 필름이 되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갔다. 숨이 끊어진 남편을 그녀가 옷을 입히고 마루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장면도 연출이

되었다.

아니다. 아닐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남편도 병원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으니 뭔가 이상이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삼 년을 넘게 낄낄을 새면서 소설에만 매달려 살았으니 그 스트레스가 오죽했겠는가?

나는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도 두 갈래 길에서 계속 갈팡질팡 헤맸다.

사람은 죽을 때 안하던 짓을 한다는데, 남편은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게 사랑의 고백을 한 것일까?

남편의 죽음은 자연사로 처리가 되었고 심장마비로 판정이 났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리고 나의 고뇌도 끝났다.

남편이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소설은 세상에 나왔고 미국신문과 한국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할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다.

나는 떨리는 가슴으로 소설을 폈다. 첫장에 쓰여있는 한 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 소설을 사랑하는 아버지께 바칩니다.’

알파벳 활자들이 살아서 움직이듯 시야에 펼쳐지면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소설에다 자기의 혼을 다 불어넣고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이다.

아! 불쌍한 사람, 나의 고뇌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그가 그냥 살아만 있다면…….

타인의 축제

김영문

땀에 흠뻑 젖은 호구 속에서 김준영은 헐떡이는 숨을 가다듬으며 마룻바닥 위를 차서 앞에 있는 상대와의 거리를 좁혀갔다. 얼굴을 가린 호면의 보호망 속에서 반짝 눈을 빛내며 재클린도 유연하게 도장의 마룻바닥을 돌았다. 열어놓은 창으로는 7월 휴스턴의 폭염이 숨이 막히도록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엄한 관장의 규율에 의해서 에어컨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도장 안은 불덩어리를 쏟아 붓고 있는 태양 바로 아래 선 것보다도 더 뜨겁게 끓어올랐다.

얏, 갑자기 날카로운 기합을 넣으며 재클린이 번개같이 뛰어들어 검을 날렸다.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씨나리오 입상 “술집 또 오시네”, 1983년 TBC 텔레비존 방송국 단막 드라마 당선 “녹색의 환희”, 2003년 재외동포문학상 단편소설 입상 “이렇게 시작하는 또 하나의 인생을”, 2003년 크리스천문인협회 단편소설 당선 “폐차장”, 미주한국문인협회, 크리스천문인협회, 한국 펜클럽, 미주한국소설가협회 회원.

아! 미처 놀랄 겨를도 주지 않고 그녀의 검이 바람을 가르며 그 앞에 방어자세로 선 준영의 호면 쓴 머리 한 가운데를 내려쳤다. 호되게 머리 위로 떨어지는 충격 속에서 앗! 소리 지르며 준영은 뒤늦게 흐트러졌던 마음을 후딱 모았다. 준영의 검 끝이 부르르 떨어졌다.

호면의 보호망 안쪽에서 긴장으로 빛나던 재클린의 눈이 의아한 빛을 띠며 물었다. 평소와 다른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나요?

뒤늦게 급히 뒤로 빠지는 준영의 발이 평소처럼 날렵하지 못했다. 어쩐지 허둥거리고 있다고 스스로도 느끼며 준영은 온 정신을 검 끝에 집중하기 위해서 애썼다.

그러나, 어젯밤 거의 십오 년 만에 뜻밖에 걸려온 동창생 이철훈의 전화. 아니, 너는! 갑자기 가슴이 쿵광거리고 뛰기 시작했다. 전화기 저쪽에서 들려오는 철훈의 목소리는 남성적이고 강했던 그답지 않게 가늘고 기운이 없었다.

“준영아. 나야. 철훈이야. 어떻게 지내고 있어?”

“철훈이! 네가 웬 일로?”

집에서 새로 나온 의학 서적을 공부하고 있던 준영은 거의 의자에서 벌떡 일어설 뻔 했다. 전화기 저쪽에서도 이쪽의 충격을 알고 있다는 듯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마침내 주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준영아, 너는 아직도 나를 미워하고 있겠지?”

준영은 뛰는 가슴을 누르며 침착해지려고 애썼다. 잠시 침묵하던 철훈이 한숨처럼 힘없이 말했다.

“준영아, 네가 말을 안 해도 알고 있어. 우린 이제 그런 일이 있기 전으로 되돌아가기는 틀린 거야. 그렇지?”

준영은 그저 침묵을 지켰다. 어떤 말이건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나 아무 말도 생각해낼 수 없었다. 대화는 더 이루어지지 않았고 철

훈은 무슨 급한 일로 준영을 꼭 볼 일이 있어서 휴스턴으로 오겠노라고 했다. 도착 시각과 비행기 편을 준영에게 알리고 철훈은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무슨 일일까?

따닥! 바람을 가르며 날아온 재클린의 검이 허공에서 준영의 검에 부딪쳤다. 그녀는 번개같이 방향을 바꾸어 반 호흡보다도 짧은 순간에 허리를 비틀어 마침 비어 있던 준영의 오른쪽 옆구리를 베어냈다. 그리고는 온몸으로 준영에게 부딪쳐 들어와 검을 맞대고 대치했다. 그 몸은 튀길 듯 긴장하여 여자의 몸 같지 않고 마치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느껴졌다. 준영은 또 들어올지 모를 공격에 대비하여 호흡을 맞추다가 재빨리 뒤로 빠져나오면서 재클린의 목을 가격했다.

앗! 재클린이 미처 방어하기 전에 준영의 검이 재클린의 오른쪽 어깨와 목 사이를 정확하게 베어냈다. 뒤늦게 펄쩍 뛰어서 뒤로 물러서는 재클린의 눈이 호면 속에서 순간 낭패로 흐려졌다.

재클린과 시선을 맞춘 채 숨을 고르며 준영은 상대의 움직임을 동물 감각으로 읽었다. 마루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여 거리를 좁혀오는 재클린의 발을 눈가로 보며 준영은 그녀가 시도할 다음 공격의 수를 예측하고 대비했다. 검도장의 독고 관장이 가르친 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재클린의 발은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다.

둥, 둥, 둥.

대련을 지켜보던 독고 관장이 태극무늬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복을 두드렸다.

“그만!”

검을 내리고 돌아선 둘은 도복을 가다듬은 후 다시 마주보며 입례했다. 준영이 호면을 벗어두고 재클린에게 다가갔다. 그녀도 호면을 벗었다. 긴 머리가 땀에 젖어 엉클어져서 얼굴에 붙어 있었다. 둘 다

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었다.

“준영씨, 무슨 일이 있어요? 오늘은 그전하고 다른데요.”

준영은 땀투성이의 얼굴을 손등으로 훔어내며 계면쩍은 웃음을 입가에 머금었다.

철훈이 어째서 그렇게 오랜만에 전화를 했고 더구나 갑자기 휴스턴에 오겠다는 것은 무슨 일인지 모를 일이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를 모두 함께 다녀서 형제만큼이나 가까운 동창생이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다. 이민 와서 뉴욕 어디에선가 산다는 이야기는 얼핏 들은 것 같지만 그 이외에는 전혀 아는 소식이 없었다. 그렇게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고 더구나 휴스턴까지 찾아오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영킨 실타래를 풀길이 없었다.

“준영씨, 괜찮아요? 무슨 걱정 있나요?”

재클린이 얼굴에 흘러내리는 땀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근심 뒤흔 표정으로 준영을 보았다.

준영과 같이 텍사스 앤더슨 캔서 센터의 언컬러지(Oncology : 종양학과) 의사인 재클린은 병원에서는 준영과 둘도 없이 마음이 맞는 파트너였고 병원 밖에서도 서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친구였다. 한국인 어머니와 백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재클린은 준영을 처음 만날 때부터 그가 자기 어머니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친밀감을 느꼈다. 준영의 권유로 검도를 배우기 시작할 때에도 재클린은 준영이 놀랄 정도로 동양의 철학과 무술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한국말을 배우기 기회가 없어서 준영이나 검도장의 독고 관장과 영어로 밖에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것을 무척 안타까워했다. 재클린은 첫 결혼에서 비극적으로 실패하고 이혼한 후 그 충격을 잊지 못해서 오랫동안 독

신으로 지내고 있었다. 마치 그 충격을 복수하듯 맹렬히 연구에 몰두하여 이제는 준영과 함께 휴스턴 앤더슨 캔서 센터의 가장 권위 있는 언컬러지 닥터중의 하나가 되었다.

재클린이 남자처럼 준영의 어깨를 툭 쳐주며 말했다.

“오늘 수술 있죠? 들어가서 쉬세요. 준영씨는 오늘 뭔지 평소하고 달라 보여요.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나는 오후 한 시부터 근무예요.”

“재클린, 감사합니다. 나는 세 시에 수술 들어갈 예정입니다.”

준영은 땀에 흠뻑 젖어있는 검도 도구들을 챙겨 들고 도장을 나왔다.

준영은 철훈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어서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자존심 어찌고 하면서 신경 쓰지 말어. 아버지가 너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라고 생각 안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준영의 어깨를 툭 쳐주며 철훈은 마치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말했다. 부유한 집 외동아들인 철훈은 언제나 거리낌 없이 행동했고 준영은 그런 철훈을 보면서 항상 부러워했었다.

둘이 모두 같은 대학에 원서를 내고 입시에 합격했는데 준영은 입학금이 걱정이었다. 철훈이 이것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자 철훈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입학금을 낼 때 준영의 입학금도 같이 내버린 것이다. 친구끼리이면서도 준영은 철훈의 앞에서 자꾸만 작게 느껴지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면서 서먹해 했다. 그런 준영의 마음을 읽었는지 철훈이 씨익 웃었다.

“짜샤, 사람이 크게 생각해야 되잖아.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꿈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큰 사람이 될 수 있겠어? 더 열심히 공부해

서 좋은 의사가 되면 그 때 아버지에게 갚으면 될 것 아니야. 아니면, 좋은 의사가 되어서 네 의술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갚아도 되고.”

철훈은 그러면서 담배를 한 가지 뽑아 물고 새로 산 던힐 라이터로 멋지게 불을 붙였다. 고등학교 때도 담배를 피웠지만 이제 숨을 필요 없이 공개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과시라도 하는 것 같이 철훈은 아무데에서나 담배를 꺼내서 불을 붙이곤 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간 준영은 이 사실을 홀어머니에게 어렵사리 알렸다. 예상했던 대로 준영의 어머니는 침착해지려고 애쓰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영아, 그 어르신께 가서 내가 입학금은 다 마련해 놓았으니 염려 놓으셔도 된다고 말씀 드리거라. 아직 납부 기일이 일주일이나 남아 있고 내가 은행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해놓았다.”

말을 마치고 조용히 눈을 감은 어머니의 눈썹이 가늘게 떨렸다고 느끼면서 준영은 죄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데, 어머니, 철훈이 아버님께서 돈을 저한테 주신 게 아니고 직접 학교에다가 납부해버리신 거예요. 저도 모르고 있었습시다.”

잠시 침묵하던 어머니가 나지막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고마우신 분이구나. 이왕에 그렇게까지 하신 일인데 그 분 선의에 너무 거역할 수도 없는 일이다. 고맙게 생각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갚도록 하거라.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어김 없이 기회가 오게 되는 것이다.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틀림없이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어머니.”

준영은 대답하고 방을 나오면서 어머니 말씀대로 언제인가는 철훈

의 아버님과 철훈에게 꼭 은혜를 갚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준영은 그 기회가 먼 훗날 그렇게 참담한 상태로 오게 되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진공 속처럼 밀폐된 수술실 안에서 준영과 레지던트 의사 두 명, 수간호사 한 명, 보조 간호사 네 명은 눈빛으로만 의사 전달을 하며 수술 절차에 들어갔다. 실내는 춥다고 느낄 정도로 과다하게 냉방되어 있었다.

소종양 폐암 부분 절제 수술.

그렇게 여러 번 해보아서 이제는 눈감고 손으로 만져보기만 해도 절개할 부위와 제거해낼 부분을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 있지만 준영의 심장은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부터 빠르게 박동했다. 인간의 몸에 칼을 대서 어디건 잘라낸다는 일은 그것을 얼마나 여러 번 해보았느냐하는 완숙의 경험도와는 상관없이 항상 긴장되는 일인 것이다. 더구나 모든 수술은 마치 첫 번째인 것처럼 항상 그전에는 없던 새로운 어떤 것이 있게 마련이고 따라서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와 간호사들은 언제나 첫 경험인 것처럼 극도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술 받아야할 환자는 전신 마취가 되어 이제부터 자기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시체처럼 발가벗겨진 채 누워있었다. 다만 실날 같은 선 하나가 삶과 죽음을 경계하고 있을 뿐이었다. 아무리 고결한 인간도 결국 보잘 것 없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질 때가 온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일이다.

준영이 손을 내밀자 수간호사가 기다렸다는 듯 숙련된 동작으로 수술용 메스를 그의 손에 놓아주었다. 그는 환자의 가슴에 미리 파랗게 마킹이 되어 있는 선을 따라 손에 힘을 주며 절개해 나갔다. 잘라

진 선을 따라 빨갭게 피가 흘러나오고 메스가 뼈 위를 지나갈 때마다 울퉁거리며 단단한 느낌이 메스를 통하여 준영의 손끝에 전해져왔다. 수술실 경험을 처음 하는 맨 끝의 두 견습 간호사는 눈만 빼놓고 얼굴을 다 덮은 마스크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질려 있었다.

일 분.

이 분.

삼 분.

차갑게 냉방된 수술실이었지만 준영의 이마에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진공 같은 수술실의 긴장감 속에서 눈으로 의사를 주고받으며 바쁘게 손을 움직여 마침내 절개가 모두 끝났다. 잘라낸 피부와 함께 그 밑에 두툼하게 붙어있는 근육과 지방질을 준영은 힘을 주어 벌려내고 클램프를 끼워 넣었다. 절개된 사이로 불빛을 집어넣고 준영은 안을 드러다 보았다. 자잔한 암 세포는 폐 속 부드러운 조직을 잠식하며 그 안 전체에 어떻게든 해 볼 수 없을 만큼 넓게 퍼져 있었다.

틀렸다. 떼어내려면 폐를 모두 다 절제해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할뿐더러 이 정도 암 세포가 진행되어 있으면 림프 선, 뼈, 간 그리고 몸의 다른 기관에도 모두 전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준영은 눈짓으로 두 명의 레지던트 의사에게 차례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불빛으로 환하게 비춰진 동굴 같은 폐 속을 들여다본 그 두 명도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다. 이 환자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스스로의 무력감에 항거하듯 이상하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준영은 얼마나 도움이 될지 확신이 없었지만 아주 나빠 보이는 부분들을 몇 군데 제거해냈다. 이 정도라도 떼어내서 다만 몇 개월이라도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면 수술은 성공한 셈이다.

날카로운 메스로 잘라낸 암 덩어리를 준영이 휘젓츠로 폐 속에서 끄집어내자 견습 간호원이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스테인리스 용기를 내밀었다. 피가 떨어지고 있는 제거물을 받아내는 손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준영은 눈짓으로 레지던트 의사 둘 중의 한 명에게 절개 부분을 다시 닫으라고 명령했다. 잠시 봉합 과정을 지켜보다가 준영은 수술 장갑을 벗어서 휴지통에 던져 넣고 수술실을 나왔다. 잘 버티면 4개월. 이제 이 환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넉넉한 분량의 진통제를 계속 몸속으로 흘려 넣어서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뿐이다. 누군가의 남편, 아버지, 아들. 누군가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꿈과 이상이 힘차게 날갯짓하며 창공으로 날아오르던 도전하는 인간. 그러나 이제 모두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모두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것이 온당한 일인가? 이렇게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없어져버려도 되는가?

준영은 수술실에서 나와서 옆방에 들러 세면대에 물을 틀고 비누를 많이 쓰면서 손을 닦았다. 그리고 이층 카페테리아로 가서 큰 컵으로 커피를 한 잔 주문했다. 창문가로 가서 밖을 물끄러미 응시하며 준영은 뜨거운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듯 들고 아끼며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창문 밖 정원 언뜻 눈 간 곳에는 다람쥐 한 마리가 유연한 동작으로 뛰다가 멈춰 서서 주위를 살피며 안전을 확인하고 있었다.

다람쥐는 수직으로 서 있는 나무를 타고 잼싼 동작으로 힘도 안들이며 포르르 뛰어 올라갔다.

“어마, 다람쥐예요. 준영씨, 저걸 좀 봐요.”

이수연이 호들갑스럽게 준영의 소매를 잡아 흔들며 말했다.

준영이 의과 대학 3학년일 때 수연은 의과 대학 건물과 마주보고 있는 건물의 문과 대학 영문학과에 신입생으로 들어왔다. 수연은 여럿 속에 섞여 있어도 얼른 눈에 띄는 수려한 미모를 가진 여학생이었다. 누구건 한번 수연에게 눈을 주면 마음 설레며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매력이 있었다. 게다가 성격 또한 수더분하고 겸손해서 그녀는 순식간에 캠퍼스 안에서 모두가 사랑하는 인기 최고의 여학생이 되었다. 그런데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인 것이 주위의 멋진 남학생들을 모두 놓아두고 수연은 조용하고 선이 가늘고 가난하고 실로 보잘 것 없는 준영에게 관심을 보이며 접근해왔다. 수연은 준영을 마치 강아지처럼 쫓쫓거리며 잘 따라다녔고 준영이 읽으라고 적어주는 책은 모두 사서 읽으며 준영의 정신세계에 맞추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수연아, 나 좀 가만 내버려둘 수 없니? 숲 속에 다람쥐가 있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신기하다는 말이나?”

읽던 책으로 얼굴을 덮고 풀밭에 누워 잠을 청하던 준영이 졸리운 목소리를 냈다. 수연이 몸으로 달려들며 말했다.

“그렇게 재미없게 낮잠만 자겠다고 그럴 거예요, 정말? 사람이 좀 낭만이 있어야하는 거 아니예요?”

몽클하며 전신에 느껴지는 수연의 무르익은 몸에 준영은 흠칫 놀랐다. 그리고 갑자기 끌어안고 뒹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나른하게 감싸오던 낮잠은 후딱 달아나 버리고 준영은 본능적으로 죄의식을 느끼며 수연의 몸을 물리치고 서둘러 일어나 앉았다.

“너 좀 까불지 않을 수 없니? 다 큰 처녀가 아무데서나 그렇게 철없는 짓 하면 되겠어?”

“후, 후, 준영씨. 우리 오늘 저녁에 맥주 마시러 갈래요?”

살살 눈웃음을 치며 준영을 보고 있는 수연의 자태는 아무리 돌덩

어리 같은 심장을 가진 남자라도 물리칠 수 없도록 요염했다.

둘의 관계는 더욱 무르익었고 준영이 4학년이 되었을 때 마침내 그들은 학교 근처의 여관에서 그 동안 자제해 왔던 젊은 욕망을 불태웠다. 분명히 첫 경험인데 수연은 밤새도록 준영에게 집요하게 매달렸다. 자유분방하게 터져 나오는 수연의 신음소리에 놀라서 준영은 옆방에서 듣지 않을까 땀을 뻘뻘 흘리며 수연의 입을 틀어막아 주어 야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준영과 수연은 두어 주일에 한 번씩은 남의 눈을 피하여 둘만의 장소를 찾아서 저희들끼리만 아는 비밀을 키워 나갔다. 준영의 품속에서 남자를 알게 된 수연은 갑자기 성숙하고 더욱 눈부시게 아름다워졌다. 그리고 비밀의 횡수가 거듭될수록 수연은 점점 더 그칠 줄 모르고 준영의 몸을 갈망했다. 그녀의 그 암흑 속 같은 욕망은 길이를 알 수 없는 동굴같이 꾸불꾸불 한없이 이어져 갔다. 이따금 준영은 수연이 가진 과도한 욕구를 걱정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일순간일 뿐 그도 역시 항거할 수 없는 쾌락 속으로 순식간에 휘말려들어 수연과 함께 불타오르곤 했다.

준영은 마침내 어머니에게 수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느 날 수연을 데리고 가서 인사를 드리게 했다. 수려한 용모와 수더분한 성격 때문에 준영은 어머니가 대환영할 줄 알았다. 그런데 수연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흐려졌다. 어머니는 조용조용한 어조로 뒷사람의 위엄과 예를 지키며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준영은 어쩐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처럼 불안했다.

수연이 가고 난 후 준영은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다.

“어머니, 어쩐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죠?”

어머니는 조용하게 앉아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말했다.

“글쎄다, 내가 보기에는 너하고 어울릴 것 같지가 않구나.”

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영도 역시 무거운 표정이 되어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는 수연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한순간에 거절해 버리시는 것일까?

철훈은 문과 대학에 입학하여 일학년을 마치고 입대했다. 한 학기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를 다닌 준영이 4학년 마지막 학기를 거의 끝내고 있을 때 철훈이 제대하여 돌아왔다. 다음 학기부터 복학할 계획이라면서 빈둥거리며 준영의 의과 대학에 찾아오곤 하던 철훈은 어느 날 준영과 수연과 함께 자기 집으로 놀러가기로 했다.

“어머니, 이게 철훈씨가 사는 집이란 말이에요?”

수연은 끝없는 것처럼 이어진 기와가 얹힌 돌담을 둘러보며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울창한 수목과 손질이 잘되어 있는 파란 잔디가 마치 고궁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었다.

철훈의 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쏘그리고 앉은 수연을 철훈이 소개했다.

“아버지, 준영이의 여자 친구 이수연이에요. 준영이와 아마 곧 결혼할 사이인 것 같아요.”

수연이 얼굴을 빨갳게 물들이며 눈을 내리 깔고 약하게 부정했다.

“아니,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눈이 수연의 예쁜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수연은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모르며 아버지의 눈을 피하려 했고 철훈은 그런 아버지의 눈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다. 그리고 무언인가가 잘못되어 갈 것 같은 두려운 예감을 느끼며 준영의 눈치를 살폈다. 준영 역시 예상 못했던 불안감을 느끼며 당황해 하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는 후 시간이 지나면서 준영과 수연의 사이는 눈에 보이는 이유 없이 서먹하게 변해갔고 더구나 둘도 없는 단짝 철훈마저도 어쩐지 소원한 관계로 멀어져가기 시작했다.

준영은 대학을 졸업한 후 군 입대 대신에 택한 2년 동안의 무의촌 봉사를 위하여 강원도 월곡리라는 곳으로 떠났다. 그 긴 2년의 무의촌 봉사 기간 동안에 준영은 철훈에게서 단 두 통의 실로 간단하게 안부를 묻는 편지밖에 받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수연에게서는 한 통의 서신도 오지 않았다.

무의촌 봉사를 마치고 준영이 서울에 왔을 때 철훈과 수연은 결혼하여 그 아버지의 대궐같이 큰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

AMERICAN AIRLINES FLIGHT NO. 127

FROM NEW YORK CITY

SCHEDULED ARRIVAL TIME 6:55PM

휴스턴 공항의 전광 문자를 읽은 후 준영은 손목시계를 보았다. 6시 30분. 아직도 25분 정도가 남아 있었다. 준영은 대기실 벤치에 앉아서 숨을 가다듬었다. 철훈이 전화가 왔을 때 ‘철훈아, 너의 처수연도 같이 오니?’ 하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유감스럽게도 철훈은 그에 대해 자진해서 언급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다.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니 거의 십오년 동안을 연락 한 번 없이 살아온 셈이 되었다. 준영이 무의촌 봉사에서 돌아와 둘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살고 있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의 그 분노감은 이제 가고 없다. 그 때 느꼈던 배신감과 절망감, 그리고 어두운 한쪽에서 파괴적으로 타오르던 복수의 의지, 그 모든 것은 다 세월과 함께 희석되어 씻겨 내려가고 없다. 이렇게 세

월이 지나간 이제 그 모든 것은 그저 부질없는 한 순간의 과거이었을 뿐이다.

준영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담담해지려고 애썼다. 그런데, 그렇게 다 잊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처럼 가슴 두근거리며 바늘로 심장을 찔러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인가?

7시 10분. 공항 근무원이 와서 닫혀있던 출구를 열어놓았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서 출구 쪽으로 몰려들었다.

잠시 후 첫 번째 승객이 출구를 통해서 나왔다. 준영도 의자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 서서 출구 쪽을 보며 나오는 사람들을 눈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기다린 후 승객이 거의 다 나왔을 때쯤 해서 마침내 철훈이 나타났다. 준영은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며 두 손을 깎지 끼어 마주 잡았다. 급히 눈으로 주위를 훑었지만 수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철훈은 혼자서 온 모양이었다. 그에게서는 부잣집 외동아들의 호방한 모습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리고 어쩐지 초라하고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의 몸은 몹시 야위어 있었다.

“철훈아!”

준영은 철훈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갔다. 철훈이 준영을 발견하고 멈칫 섰다가 어쩐지 어색한 웃음을 띠우며 걸어왔다.

“놀랐지? 갑자기 전화를 하지 않나, 이렇게 불쑥 나타나지를 않나 말이야.”

철훈이 쉼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리고 자신 없는 사람처럼 겹눈으로 준영을 훑어보았다.

“너는 그냥 그대로 변하지 않았구나. 모습이 옛날 그대로야.”

준영은 철훈의 손을 찾아 잡고 악수를 한 후 두 팔을 벌려 그를 부둥켜안았다.

“물론 놀랐다. 헤아려 보니 자그마치 십오 년 가까이 되었어. 혼자 왔니?”

준영은 팔 안에 느껴지는 철훈의 몸이 뼈 꼬챙이처럼 메말라 있는 것에 흠칫 놀라면서 팔을 풀었다. 그리고 얼른 철훈의 손에서 여행 가방을 빼앗아 들었다.

“혼자야. 이수연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나와 버렸어. 너에게는 큰 죄를 짓고 살았으면서도 이렇게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기니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어. 몹시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철훈은 쉼 목소리로 온몸을 쥐어짜서 힘을 들이는 것처럼 말했다. 자기의 아내를 마치 관계없는 여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같이 성까지 붙인 이름으로 지칭해서 부르고 있었다. 준영은 철훈을 차에 태우고 공항을 빠져나와 집으로 가는 하이웨이로 올라섰다. 어쩐지 철훈에 대한 예감이 어두웠다.

“너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을 때였어. 너무 철없이,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크게 잘못된 후였다는 말이야. 빨리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의 꼭두각시처럼 살았어. 그리고 아버지는 수연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에게 결혼을 강요했어.”

일정한 간격으로 서있는 가로등이 달리는 차 안으로 빨려들어 왔다가는 뒤로 사라지곤 했다.

“준영아, 나는 네가 다시 마음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 나는 너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싶어.”

철훈은 처절한 얼굴로 차창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잘못 살아온 인생이었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도 결국은 다 내가 탕진해 버렸어. 나는 지금 직업도 없

고 돈도 없는 구제 불능의 거지가 되어 있는 거야.”

힘들어서 말을 마친 철훈의 얼굴이 벌개지더니 참을 수 없는 기침을 해댔다. 준영의 머릿속으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철훈은 갑자기 왜 내가 필요해졌다는 것일까? 운전대를 잡고 있는 손에 파르르 경련이 왔다.

“철훈아, 괜찮니?”

대답 없이 창밖에 눈을 주고 있는 철훈의 얼굴에 희미하게 자학적인 미소가 떠오른 것을 준영이 겉눈으로 놓치지 않고 감지해냈다.

“준영아, 나를 미워하지 말고 도와 줘.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도 우리는 한 때 친구였지 않아?”

철훈이 나직이 혼잣말하는 것처럼 속삭였다. 그것은 차라리 호소와 같은 것이었다.

“철훈아. 나는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어. 이제 모든 것은 다 지나간 부질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고 말이야. 너를 미워했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워버리고 싶어.”

“준영아, 고마워.”

준영은 하이웨이에서 벗어나 집으로 가는 낯익은 도로로 들어섰다. 맞은편에 있는 맥도날드의 환한 형광 간판이 사위를 낮처럼 밝게 비추고 있었다.

“이제 나는 네가 미워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가 되어 버렸어.”

차가 맥도날드의 환한 불빛 앞을 지나가면서 잠시 드러난 철훈의 얼굴은 섬뜩하도록 창백했다.

“이수연은 네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너의 뒤를 추적하기 시작했어. 네가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에 편입학한 후 수석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 인턴, 레지던트,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을 용케도 알아내서 모두 기록해두고 있었지.”

준영의 심장이 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 때 그 시절의 아쉬웠던 추억이 가슴이 미어지도록 되살아났다. 내 손을 떠난 한 마리의 작은 새. 분노와 좌절감으로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울며 살던 그 긴 세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준영은 차의 속도를 줄이다가 정지했다. 차 안의 작은 공간 속에서 둘은 서로 저마다의 생각에 잠기어 침묵했다. 파란 불로 바뀌고 차가 출발하면서 철훈이 희미하게 자조를 띄우고 말했다.

“수연은 네가 오늘까지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준영씨는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고 있다. 왜 그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일까? 수연의 일기장에 그렇게 써어져 있더군.”

간신히 말을 마친 철훈은 참을 수 없는 기침을 터뜨렸다. 다급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찾아 입을 막고 철훈은 자지러질 것처럼 한참 동안 기침을 해댔다. 하얀 손수건에 빨갭게 피가 묻어나왔다. 준영은 그것을 보고 긴장했다. 철훈이 피 묻은 손수건을 손에 들고 허탈한 얼굴로 앞을 내다보았다.

“한 보름 전에 뉴욕에 있는 의사에게서 진단을 받았어. 폐암이라는 군. 감기 기운이 떨어지지 않아서 왔다니까 아니라는 거야.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면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어.”

폐암! 철훈이가! 준영은 갑자기 머릿속으로 피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심장의 고동이 빨라졌다.

철훈이 이야기하는 사이에 차는 집 앞에 도착했다. 준영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의식하지 못하면서 습관적으로 버튼을 눌러 차고 문을 열고 널찍한 드라이브웨이로 들어서다가 멈추었다.

폐암! 환자가 증세를 느낄 때는 이미 치료의 적기를 놓쳐버리게 되는 불치의 병. 자연과 생명의 법칙을 위반하고 미친 것처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퍼지고 또 죽어 없어질 줄 모르는 기형 세포의 군단 악성 종양.

“그 의사는 또 다른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빨라지는 숨결 사이로 준영이 물었다. 텅 빈 차고 안으로 헤드라이트의 불빛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 의사는 몹시 나쁜 상황이라고 했어. 작은 암세포가 폐 속에 많이 퍼져 있다고 했어.”

소 세포 악성 종양(SMALL CELL CARCINOMA). 순식간에 진행되고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전이되는 급성 폐암이다. 진단 후 생존 가능 기간 2 개월에서 6 개월. 며칠 전에 집도했던 환자도 이런 폐암이었다.

준영은 아무 말 없이 후진 기어를 넣고 차를 뒤로 뺐다. 버튼을 눌러서 열었던 차고 문을 다시 닫았다.

“철훈아. 내가 일하는 병원으로 가자.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더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준영은 앤더슨 캔서 센터로 차를 몰았다.

“고마워. 그런데 나는 돈도 없고 보험도 없어. 치료비를 어떻게 내야할지 모르겠어.”

“그런 건 나중에 걱정해도 돼. 도무지 방법이 없으면 극빈자로 처리해서 무료 치료를 받게 할 수도 있어. 그런 건 일단 검사를 해보고 나서 걱정하자.”

철훈의 눈이 두려움을 담고 애처롭게 매달리며 준영을 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준영아, 고마워. 날 좀 도와줘. 나는 무서워.”

죽음. 그것은 무서운 것이다. 꿈을 가지고 정력적으로 움직이던 인간이 죽어서 소멸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리고 그 무서운 일이 어느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틀림없이 오게 된다는 사실은 더욱 무섭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준비된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 그것은 언제나 예고 없이 오게 되는 것이다. 볼티모어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하던 시절 한국에서 걸려왔던 뜻밖의 전화. 어머니의 교통사고로 인한 죽음. 준영은 그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리고 그 공포의 방문객이 지금 철훈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준영은 철훈을 응급실에 입원시켰다. 응급실 담당 의사와 의논한 후 혈액 검사와 흉곽 엑스레이를 처방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준영은 자기 사무실로 올라가서 가운을 꺼내 입고 근무자 관리 사무실에 전화해서 자기의 근무 상태를 비번에서 근무로 바꾸어 놓았다. 응급실 접수 사무실에 들어서 입원 수속에 필요한 서식 한 벌을 받아들고 준영은 철훈의 침대로 갔다.

철훈의 팔목에는 환자 태그가 채워져 있고 손등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혈액은 이미 채취해간 모양이었다.

철훈은 침대에 누워서 공허한 눈으로 천정을 응시하고 있다가 준영을 보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지?, 하고 눈으로 물었다.

“편안하게 생각하고 좀 누워있어. 아마 최소한 며칠 동안은 이 병원에서 묵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할 거야.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준영은 입원 수속 서류와 볼펜을 철훈에게 주었다.

“시간 있을 때 이거나 써 봐.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칸에는 없다고 쓰면 돼. 엑스레이는 찍어갔니?”

“응. 기계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찍었어.”

“됐어. 결과가 나왔는지 보고 올 테니까 잠시 기다리고 있어.”

준영은 당직 의사의 사무실로 갔다. 그는 마침 방금 인화되어 배달되어온 엑스레이 필름을 벽에 부착된 형광관에 쫓고 보고 있었다.

“준영씨, 마침 잘 오시는군요. 이걸 보십시오.”

텍사스 토백이인 당직 의사는 심한 억양의 남부 사투리로 말하며 준영에게 엑스레이 필름을 가리켰다. 준영은 형광관 위에서 기괴한 명암을 그리며 빛을 받고 있는 엑스레이 필름을 보고 전율했다. 혹시나 하는 일말의 희망은 사라지고 그 필름은 뉴욕에서 받은 진단을 다만 확인해주고 있을 뿐이었다. 혈액 검사도 마찬가지였다. 철훈의 몸속에서는 무서운 속도로 전이되고 있는 공격적인 소세포 악성 종양이 잔인하게 그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었다.

준영은 굳은 얼굴로 밖으로 나왔다. 지금까지 수백 번에 걸쳐서 이런 상황을 경험했다. 암전문의로서 준영은 베테랑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사로서 뿐만이 아니고 가족으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해내야 하는 것이다. 준영은 다시 철훈의 응급실 침대로 갔다.

철훈은 혼미한 상태로 잠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준영은 잠시 서서 처참한 심정으로 내려다보다가 가만히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철훈이 힘없이 눈을 떴다. 피로하고 빛이 없는 눈이 준영을 잠시 응시했다.

“어때?”

철훈이 쿨렁쿨렁 기침 사이로 힘없는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다.

“상태가 좀 나쁜 편이야. 내가 방을 바꿔주겠어. 이 응급실에서 나와서 입원실로 옮기는 거야. 아무래도 며칠 더 머물면서 좀 더 자세한 검사를 해보고 싶어.”

철훈이 준영의 손을 찾아서 잡고 떨며 힘을 주었다.

“준영아.”

“응?”

“병이 심한 모양이지?”

“.....”

“나, 그냥 죽게 내버려두면 안 돼.”

“알았어.”

힘없는 눈으로 매달리며 자기를 보고 있는 철훈의 눈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준영은 외면했다.

“네 처도 네 몸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응, 뉴욕에서 의사에게 같이 갔었어.”

“집 전화번호를 줘. 전화해서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알려 주겠어.”

철훈은 준영에게 전화번호를 말해주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찾을 사람은 너 밖에 없으니까.”

준영은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철훈의 손을 한 번 쥐어준 후 응급실을 나왔다. 자기 사무실로 가서 의자에 앉아 손목시계를 보았다. 밤 10시 20분. 뉴욕 시각은 11시 20분이리라. 잠시 어쩔까 망설이다가 준영은 전화기를 들고 철훈의 집 전화번호를 눌렀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벨이 울리자 마침내 딸깍, 저쪽에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거의 십오 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그것이 수연이라는 것을 준영은 대번에 알아낼 수 있었다. 그는 갑자기 맥박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면서 바보가 된 것처럼 당황스럽게 할 말을 찾으려고 애썼다.

“나, 준영입니다.”

전화기의 저쪽에서는 갑자기 침묵이 흘렀다.

“철훈이가 저를 찾아왔군요. 위독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침묵의 끝에 수연의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말했다.

“가겠어요.”

준영은 수연에게 자기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아침에 출근한 재클린은 준영이 사무실의 의자에 앉아서 가운을 입은 채로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야간 근무를 한 간호사 한명이 지나가다가 그녀를 보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재클린은 측은한 표정으로 준영을 보다가 그의 사무실 문을 소리 안 나게 닫아주었다. 그리고는 간호사가 알려준 대로 입원실로 옮겨진 철훈의 병실로 들어가서 준영 대신에 환자의 병세를 확인했다. 환자는 혼수상태 속에서 아직은 기계의 도움 없이 혼자서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러나 심장 박동은 위험할 정도로 약했다. 이대로 간다면 불과 며칠 가지 않아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해야 생명이 연장될지도 모른다.

재클린은 담당 병실들을 한 바퀴 순회하고 내려와서 다시 준영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준영은 아까처럼 의자에 앉은 상태로 잠에서 깨어서 멍한 얼굴로 허공을 보고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재클린이 물었다. 준영이 대답 대신에 고개를 끄덕거렸다. 재클린이 들어와서 책상 모서리에 걸터앉았다.

“누구죠? 이 환자는?”

준영은 잠에서 미처 깨어나지 않은 눈으로 허공을 한참이나 응시하다가 대답했다.

“친구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같이 다닌

친구입니다.”

재클린이 깊은 눈으로 준영을 보았다. 그리고 주저하다가 물었다.

“준영씨의 결혼랜드와 결혼한 친구인가요?”

언제인가 준영은 재클린과 같이 앉아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사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재클린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준영이 고개를 끄덕여서 긍정했다. 재클린은 잠시 생각하다가 걸터앉았던 책상에서 몸을 일으켰다.

“준영씨, 그 환자는 내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을 테니까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오세요. 아주 지쳐 보이는군요.”

준영이 피곤한 몸을 의자에서 힘들여 일으켰다. 온몸이 나무토막 같이 느껴졌다.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아서 준영은 책상 모서리를 잡고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괜찮아요?”

재클린이 얼른 와서 준영의 팔을 잡아 부축했다. 준영을 보는 재클린의 눈에는 깊은 연민이 어려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재클린 말처럼 저는 지금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환자는 제가 잘 돌보겠어요. 걱정 말고 집에 가세요.”

“재클린. 고맙습니다.”

준영의 팔을 잡아주는 재클린의 손에 힘이 주어졌다. 그 재클린의 손에서는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다. 형클어진 뒷머리를 보이며 방을 힘없이 나서는 준영을 재클린의 정어린 눈이 지켜보고 있었다.

철훈은 한사코 마다하는 준영을 거의 팔을 끌다시피 하며 그의 집 근처 허술한 다방으로 데리고 나와서 같이 앉았다. 준영이 볼티모어

의 존스 홉킨스 의과 대학에 편입학이 확정되어 떠나기 며칠 전이었다.

“변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분명히 네게 알려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이기에 변명이 아닌 설명을 하기로 결심했어.”

한참을 준영의 눈길을 피해서 탁자만 내려다보며 앉아있던 철훈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준영을 보며 입을 열었다.

“물론 당사자인 나에게 모든 최종 책임이 있다. 말할 것도 없어. 그러나 수연과의 결혼에는 나의 의사보다는 아버지의 완강한 고집이 더 작용했다는 것을 나는 너에게 말해두고 싶다. 아버지는 그 결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재산 상속도 보류해 놓겠다고 압박을 했어. 지나놓고 보니까 아버지는 또 아버지 나름대로 당신 스스로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어.”

적의를 감추기 위해서 애쓰던 준영의 눈이 괴로움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지? 이제 모든 것을 잊고 떠나려고 하는 나를 마지막 순간까지 괴롭히려는 뜻인가?”

철훈의 얼굴이 번민으로 이지러졌다.

“준영아. 나를 용서해줘. 내가 비겁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괴로운 얼굴로 철훈은 담배를 빼어 물고 불을 붙였다. 긴 한 모금의 연기가 폐 속으로 들어갔다가 한숨처럼 철훈의 입을 통해서 빠져 나왔다. 철훈은 무엇인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입을 열지 못하고 몹시 주저했다. 준영은 그런 철훈을 뒤에 남겨두고 싸늘한 뒷모습을 보이며 자리를 떠버리고 말았다.

준영이 출국하는 날 철훈은 차를 몰고 와서 집 앞에서 기다렸다. 어머니와 작별하고 준영이 대문을 나서자 철훈은 머뭇거리다가 다가갔다.

“준영아, 마다하지 말아 줘. 널 내가 언제 또 보게 되겠니? 지금은 어찌 되었건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였지 않아?”

철훈은 준영의 트렁크를 빼앗아 차에 싣고 문을 열어주었다. 준영은 잠시 주저하다가 떨어진 곳에서 근심스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다.

차가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준영은 한사코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철훈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했지만 준영의 차가운 침묵의 벽에 막혀서 아무 말도 꺼낼 수가 없었다.

공항 터미널 앞에 도착했을 때 준영은 짙막하게 작별 인사를 남긴 후 트렁크를 꺼내 들고 총총히 안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그 뒷모습을 안타깝게 눈으로 쫓으면서 철훈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못난 스스로를 저주했다.

준영아. 네가 내 마음을 알면 너는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아니, 아마 너는 나를 동정하면서 나의 어깨를 끌어안고 같이 울어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일이 이렇게 될 줄을 나는 모르고 있었어. 정말이야.

철훈은 준영이 밀고 들어간 유리문을 한참이나 초점 잃은 눈으로 보고 있다가 얼굴을 떨어뜨리고 돌아섰다.

점통같이 뜨거운 도장 안에서 무릎 꿇고 앉아 준영과 재클린은 참선하는 자세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있었다. 준영은 온몸으로 더운 물처럼 쏟아져 내리는 땀을 흐르는 대로 놓아두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반대쪽에 마주보며 앉은 재클린도 땀투성이가 된 얼굴을 씻을 생각도 없이 몰아의 경지 속으로 침잠해 있었다.

역시 눈을 감고 정신을 한 가닥으로 집중시킨 독고 관장이 북을 앞에 놓고 한참 만에 한 번씩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두드렸다.

등.

등.

등.

풀잎 스치는 소리도 귀에 거슬릴 것 같은 적막 속에서 이따금 울려 오는 북소리가 현실을 떠난 신비한 다른 세계를 만들었다.

철훈의 병세는 마치 빠져나오지 못할 수렁 속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처럼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지고 있었다. 정맥 주사로 몸에 투여하고 있는 키모 테라피 액의 부작용도 철훈의 몸에 마지막 남아 있는 가냘픈 생명력을 빼앗아 더 힘없이 만들고 있었다. 모든 검사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이미 수술의 시기는 놓쳤다. 내일부터는 방사능 치료를 처방해볼 생각이다. 그것이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은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철훈은 길게 예정해도 수 개 월 안에 그 가공할 속도로 자라서 퍼져 나가고 있는 기형 세포의 공격에 무너져야 한다.

등.

등.

등.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없이 가고 말 허망한 미물일진데 어찌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았더라는 말인가.

검 끝을 마주 대고 상대방의 공격과 방어 의 길을 마음으로 읽어 터득하며 오랫동안 같이 훈련해온 재클린이 이번에도 마치 준영의 생각을 읽은 듯 머리터럭도 움직이지 않는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마음으로 화답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 자기 몫의 짐을 지고 홀로 가고 있는 외로운 길손들입니다. 벗어버리고 싶지만 뒤집어쓰고 숨어 있는 딱딱한 껍질 속에서 나오기가 무섭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던 남편이 내 친구와 내 침대에

서 정사를 벌리고 있는 장면을 보았을 때 세상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못 본 것처럼 문을 닫고 나와서 텅 빈 마음으로 밤길을 걸으면서 나는 문득 내가 갈 곳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은 자기 몫의 짐을 지고 모두 홀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모두에게서 소외되어 혼자서 가면서 자기 속으로, 속으로만 들어가서 숨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껍질을 뒤집어쓰고 살면서 남이 건드리면 또 다칠까봐 겁나서 죽은 척하는 딱정벌레입니다.

둥.

둥.

둥.

독고 관장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뚝! 하고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둥, 둥, 둥.

북소리가 빨라지다가 다시 잦아들더니 언제인지 모르게 멈추고 정적이 시작되었다. 독고 관장이 조용히 일어나고 준영과 재클린도 따라 일어나서 셋은 옷깃을 여미고 서로에게 예를 표했다.

재클린의 도움과 준영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훈의 병세는 시시각각으로 위태로워져갔다. 재클린은 앤더슨 캔서 센터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며 항상 조용하면서도 자신만만하던 닥터 김준영이 자기 페이스를 잃고 그렇게 초조한 모습으로 병실을 오가는 것을 처음 보았다. 더구나 그렇게 사랑하던 결혼편지를 찾아간 사람이라면서 어찌 그렇게 애써줄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검도 도장에서 배우고 있는 동양인의 용서와 사랑의 철학과 같은 것인가? 재클린은 자기 몸의 반쪽에 흐르고 있는 동양인의 피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무척 애썼다.

검도장의 독고 관장이 말했었다. 증오심과 미움을 가지고 힘으로 내려치는 검은 목표를 맞출 수 없다. 항상 경외심을 품고 마지막 순간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검은 최후의 순간까지 아꼈다가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최종의 수일 때에야 비로소 쓰는 것이다. 어떠한 방법이건 검을 안 쓰고 해결하는 길이 보이면 주저 없이 그 길을 택하라. 검을 안 쓰는 해결책은 검을 써서 얻는 결과보다는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이다. 관대하게 용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나를 더 높은 경지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첩경이다.

준영은 그래서 정면 파괴보다는 우회적 길을 택했던 것은 아닐까? 재클린은 궁금했다.

오후 근무에 출근하여 마약 가운으로 갈아입고 나오던 재클린이 복도 저쪽에 등을 보이고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준영을 발견하고 다가갔다.

“준영씨.”

지친 모습으로 등을 보이며 창밖을 내다보던 준영이 돌아보았다. 항상 단정하고 빈틈없던 그의 머리가 어지럽게 헝클어져 있었다. 창밖 정원에는 잘 손질된 나무와 화초들이 찬란한 햇빛 아래 싱그럽게 생명을 노래하고 있었다. 돌아보며 억지로 미소 짓는 준영에게서 재클린은 한없는 인간미를 느꼈다. 작은 아기처럼 보듬고 다독거리면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준영이 다시 창밖으로 눈을 주고 패배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일생을 바쳐 공부한 것이 암세포인데 죽음을 앞에 둔 친구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재클린의 손이 위로하듯 준영의 어깨에 가 닿았다.

“우리는 의사일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느님이 하실 일입니다.”

“아집과 욕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스운 노릇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어제까지 건강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마치 러시안 룰렛을 하듯 갑자기 죽어 없어지는 것을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처 죽음을 준비할 사이도 없이 말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모든 준비는 다 할 수 있어도 죽음을 채비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창밖에는 살짝 스쳐 지나가며 불어온 바람에 나뭇잎들이 흔들리며 거기 부딪쳐 오는 햇살이 보석처럼 찬란하게 부서져 쏟아졌다. 재클린의 따뜻한 체온이 준영의 어깨에 닿아 있는 손을 통하여 전해져왔다. 갑자기 죽음과 함께 나타난 철훈과 그로 인해 되살아나고 있는 과거의 아픈 추억 속에서 준영은 당황스럽게 길을 잃고 있었다. 재클린의 손길은 그런 준영의 마음속에 어릴 때 어머니 손길이 그랬던 것처럼 아늑한 안도감을 심어주고 있었다.

준영은 해가 지고 사위가 완전히 어두워진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 집은 마치 오랜만에 돌아온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차를 회전하여 드라이브웨이로 들어서면서 습관적으로 차 천정에 붙어있는 버튼을 눌러서 차고 문을 열었다. 휘익 돌아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에 언뜻 들어왔다가 다시 어두워진 현관 계단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는 것 같았다. 흠칫하며 준영은 차를 차고에 넣고 급히 나와서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트렁크를 옆에 놓고 계단에 여자가 앉아 있다가 준영을 올려다보았다. 다가가던 준영의 발이 우뚝 멎었다.

“수연!”

여자는 앉은 자세에서 움직이지 않으며 준영을 올려다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저예요.”

“아니, 언제…….”

말하다 말고 준영은 급히 열쇠를 찾아서 현관문을 열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몹시 어색한 순간이었다. 한 때는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가깝게 모든 것을 나누었지만 이제는 남의 아내가 된 여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더운데 밖에 앉아 있다니.”

수연의 트렁크를 들어서 현관 안으로 옮겨 놓으며 준영은 수연을 위해서 문을 잡아 주었다. 수연이 주저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갔다. 찌는 듯이 더운 바깥 날씨에 비하면 냉방이 잘된 넓은 집안은 더할 수 없이 쾌적했다. 시간제로 와서 일하는 하우스 메이드가 청소하고 정돈해 놓은 집안은 구석구석까지 깔끔했다. 준영은 현관문을 닫고 수연을 안내해서 거실의 소파에 앉게 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쉽게 손 닿는 곳에 있는 딸기 주스의 병을 들어 한 컵 따랐다.

조용히 허공을 보며 앉아 있는 수연의 볼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준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앞에 주스 컵을 밀어놓았다. 무겁게 짓눌러오는 침묵을 견딜 수 없어서 준영은 일어나 차고로 가서 버튼을 눌러 차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잠시 서서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다가 다시 거실로 돌아와 수연과는 거리가 떨어진 곳의 소파에 앉았다. 또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이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윽고 수연이 조용한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이렇게 초라한 몰골로 찾아와서 준영씨하고 같이 앉아 있기가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죄스러운 생각뿐입니다.”

준영은 눈을 내리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연이 다시 말했

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버린 후에도 모든 것이 다 잊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수연의 그 빼어난 용모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한 때 그렇게 생명력이 넘치고 물고기처럼 싱싱했던 그녀에게서는 더 이상 활기와 발랄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세월의 흐름에서 오는 변화와는 또 다른 변화였다. 항상 웃고 있던 얼굴에는 오랫동안 겹쌓인 근심과 슬픔이 어둡게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준영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외롭게 가고 있는 또 하나의 사람을 보고 있었다. 무한히 행복하고자 했고, 또 행복할 수 있었던 사이였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죠?”

허공에서 눈을 돌려 수연은 젖은 눈으로 준영을 보았다.

“제가 일하는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상태가 몹시 안 좋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가요?”

준영은 수연의 시선을 느끼고 눈을 내리깐 채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준영을 보던 수연의 눈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렇군요. 뉴욕의 의사가 한 말이 맞는 모양이군요. 저에게 몇 개월 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연이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참담하게 말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단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먼에서 앰블런스인지 경찰차인지가 경적을 울리면서 달려서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다.

“그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 후 시아버님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준영씨가 미국으로 떠나신 후부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방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박과 타고난 바람기로 집에서 자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많은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밖에 차 소리가 나더니 멎고 차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옆집의 누군가가 퇴근하여 집에 온 모양이다. 그러나 차 소리는 다시 부웅하며 멀어져갔다.

또 얼마간의 건디기 힘든 침묵이 흘렀다.

“인내하면서 입을 다물고 살아온 세월인데 이제 뒤늦게 어떤 말을 하던 무슨 소용에 닿겠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일도 아닐 테고. 그러나 언젠가 한 번쯤은 누구에게든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침묵의 끝에 수연은 감정이 쇠진된 텅 빈 눈으로 초점 없이 허공을 보며 말했다.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것이었고 시작부터 악몽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는 사이에 그 사람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씨에게 죄를 짓고 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눈을 감았다.

“시아버님께서는 제가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이후 과분할 정도로 저에게 관심을 보이며 잘해 주셨습니다. 금전적으로 풍요롭고 시아버님의 분에 넘치는 사랑도 있고, 저는 처음으로 황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은 얼마 가지 않아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수연이 잠시 입을 다물고 생각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 큰 집에는 항상 시아버님과 저하고 일하는 분들만 있었고 철훈

씨는 아버님의 돈을 탕진하는 일에 바빠서 집에 들어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철훈씨는 단 한 번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하고 있는 수연의 양 볼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수연은 님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시아버님은 아들에게 그렇게 쉽게 재산을 물려주신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셨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모르고 있었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통한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혼자 있어야하는 저를 시아버님은 안쓰럽게 생각하고 동정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시아버님의 품에 머리를 묻고 울었습니다.”

잠시 멎어 있던 에어컨이 우웅하고 다시 돌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를 보는 시아버님의 눈이 그저 머느리를 동정하는 눈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 동안에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받았던 제 느낌이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듣고 있던 준영이 놀라며 수연을 보았다. 갑자기 준영은 언제인가 수연과 함께 철훈의 집으로 놀러 갔을 때 수연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철훈의 아버지가 생각났다. 그리고 그 때 느꼈던 당혹감이 마치 어제인 것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수연이 남의 이야기를 하듯 말을 이었다.

“제 고독했던 마음이 더 시아버님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가도록 부채질했는지도 모릅니다.”

수연의 입술이 가늘게 떨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시아버님과의 관계는 나에게는 도리어 철훈씨와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아버님은 자상

하시고 저를 몹시 아껴주셨습니다.”

또 숨 막힐 것 같은 침묵이 드리웠다.

이 때 준영은 밖에 인기척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러나 기척은 잠시 귀를 기울이는 사이에 다시 조용해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철훈씨가 집문서를 잡히고 도박을 한 후 집달관이 들이닥쳤을 때 불쌍한 시아버님은 뇌일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후 한 번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병원에서 한 달쯤 누워계시다가 운명하시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며 바깥의 무더운 밤바람이 휘익 쏟아져 들어왔다. 준영은 놀라서 벌떡 일어섰다. 수척한 철훈이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수연도 놀라서 일어났다.

“철훈이. 아니, 어떻게 병원에서 나왔지?”

준영은 왠지 모르게 철훈을 경계하며 물었다. 수연을 발견한 철훈의 입가에 냉소가 지나갔다.

“그렇군. 여기로 올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하다 말고 철훈은 허리를 꺾으며 심하게 기침을 해댔다. 다시 거친 숨을 가다듬으며 철훈의 눈이 섬뜩하게 수연을 쏘아보았다.

“그렇게 원하더니 이제야 준영이와 함께 있게 되었군.”

수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온몸으로 떨고 있었다. 철훈이 벽을 의지하고 서서 힘겹게 숨을 헐떡였다.

“어쩐지 지금쯤은 내가 준영이하고 함께 오랜만의 해후를 하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어서 병원을 빠져 나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말이야.”

갑자기 철훈이 몰고 온 긴장감 속에서 준영이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비상 전화가 울렸다. 준영은 얼른 전화기를 끄집어내어 귀에 댔다. 짐작했던 대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닥터 김. 큰일 났습니다. 닥터 김의 환자 철훈 리가 병실에서 없어졌습니다.”

준영은 뿔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전화에 대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근무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요? 그 환자는 택시를 타고 내 집에 방금 도착해 있으니깐 빨리 앰블런스를 보내시오.”

준영은 전화를 끊고 철훈에게 다소 엄하게 말했다.

“철훈이.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병원 규칙을 지켜야 돼. 자기 마음대로 병원을 이탈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

준영은 철훈을 부축하고 소파에 데리고 와서 앉히려려고 했다. 철훈은 그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뜻밖에도 강한 힘이었다.

“괜찮아. 내버려 둬. 내가 혼자서 하겠어.”

벽을 짚으며 철훈은 준영의 도움 없이 한 걸음씩 소파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쁜 숨결 사이로 말했다.

“그 때, 그러니까 네가 무의촌으로 떠나버린 직후, 우리는 이수연이 너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아버지는 소문 내지 말고 임신중절 수술을 받으라고 했지.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어. 너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말이야.”

철훈은 불안정한 걸음으로 소파로 가서 힘들이며 앉았다.

뜻밖의 사실에 준영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철훈과 수연을 번갈아 보았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었어.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도, 나도, 또 이수연도 모두 제대로 된 판단이 없었던 것이야. 아버지와 나의 눈에 이수연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고 이수연에게 우리는 엄청나도록 큰 부자였어.”

수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선 채로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철훈이 힘없이 소파 등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임신 중절 수술은 잘못되었고 이수연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어 버렸어.”

말 사이로 철훈은 쿨럭쿨럭 기침을 해냈다.

“이수연은 법적으로 내 아내이면서 단 한 번도 정신적으로 나와 함께 있어본 적이 없었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아버지 쪽에 서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너의 행방을 추적하고 너의 근황을 알고 싶어 하면서 학교 다니던 시절 속에 파묻혀 사는 여자였어. 그 사이에서 나는 말하자면 허수아비처럼 살아온 셈이야.”

소파 등받이에서 힘겹게 상반신을 일으킨 철훈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자기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웅크렸다. 절망과 자조로 이지러진 얼굴이 멍하니 바닥을 응시했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참고 살 수 밖에 없었어. 마치 죽은 것같이 말이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고 나서 마침내 아버지가 상속 서류에 도장을 치고 나자 나는 철없이 그 많던 재산을 순식간에 다 없애버린 거야. 모든 것이 날아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나는 바보가 되어 버렸어. 집까지 빼앗기고 셋방살이가 되면서 나는 비굴하지만 이수연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길이 없어졌어.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나가는지 그 방법을 모르고 있었어.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있는 에어컨의 단조로운 기계음 속으로 침묵이 흘렀다. 이따금 멀리에서 차 달리는 소리가 정체된 공기를 잠깐씩 흔들 뿐이었다.

마침내 견디기 힘든 침묵을 깨고 철훈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우

리는 하루도 서로를 아끼면서 다정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 이수연과 나 사이에는 항상 아버지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자리 잡고 있었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거야.”

갑자기 흐드득 수연이 참을 수 없는 흐느낌을 터뜨리고 쓰러지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웅크리고 앉아 있던 철훈이 또 쿨럭쿨럭 힘없이 기침을 해댔다. 그리고 기침 사이로 힘들이며 중얼거렸다.

“저 여자와 나는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던 거야. 그랬으면 모두가 행복했을 수 있었을 거야.”

허공을 올려다보는 철훈의 눈에 한없는 괴로움이 들어 있었다.

“그랬으면 나는 너하고 언제나처럼 친한 친구로 함께 오늘까지 살아 올 수 있었을 텐데.”

철훈의 눈에 고였던 눈물이 실내등 불빛을 반사하며 볼 위로 번져 내렸다.

“너는 내가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너를 제물로 삼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그렇지 않아. 우리가…….”

말하다말고 철훈은 폐의 깊은 속에서 터져 나오는 가쁘고 고통스러운 기침을 해댔다. 급하게 입으로 갖다 댄 손수건에 기침 사이로 터져 나온 빨간 피가 끈적거리며 번졌다.

“너를 혼자 고통 속에서 살도록 몰아넣고 다른 편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건 틀린 생각이야. 내게는 또 내 몫의 짐이 있었던 거야.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너는 그걸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주지 못할 거야.”

철훈은 기침이 멎자 손수건에 묻어 진하게 번질거리고 있는 피를 마치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물끄러미 응시하다가 웅크린 채 말했다.

“이제 나는 나의 마지막 짐을 지고 가고 있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돼. 모든 고통이 없어져 버리겠지.”

철훈의 얼굴에 희미하게 자학적인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모두 끝나 버리는 거야. 그것은 몹시 좋은 일이야. 내 짐은 나한테는 너무 무거웠어.”

다시 시작된 침묵 속으로 먼데서부터 앰블런스의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순식간에 가까워지고 집 앞에서 끼익! 마찰음을 내며 멎었다. 쿵쾅거리며 발소리가 뛰어들더니 바깥에서 멎고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준영이 문에 대고 말하자 두 명의 응급요원이 바깥의 더운 공기와 함께 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준영의 눈짓에 따라 응급요원은 철훈을 붙들어서 바퀴달린 응급 침대 위에 누이고 벨트를 채워서 고정시켰다. 철훈은 시키는 대로 순순히 응하고 있었다.

“철훈이. 아무 생각 말고 병원에 가 있어. 내일 아침에 내가 찾아볼게.”

“이제 모두 끝났어. 내가 없어진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바보스런 일이겠지.”

응급요원들이 철훈을 눕힌 침대를 앰블런스 안에 싣고 떠나는 것을 본 후 준영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 때 까지도 수연은 앉은 자세에서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수연이 울음기 머금은 목소리로 작게 혼잣말하듯 말했다.

“미안합니다. 저의 잘못으로 모든 일은 다 그릇된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수연의 두 볼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층으로 올라가십시오. 피곤할 텐데 제가 침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준영이 수연의 트렁크를 집어 들고 앞서서 계단을 올라갔다. 시선을 내리깔고 따라가면서 수연은 숨죽인 소리로 흐느끼며 말했다.

“진정으로 즐거워서 환하게 웃어본 것이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털어버리고 옛날처럼 내 멋대로 한 번 크게 웃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이따금 생각해봅니다.”

병원 탈출 사건이 있었던 그 날 밤 이후 철훈은 감시가 철저한 독방으로 옮겨졌다. 그는 이미 죽음이 피할 수 없이 예정된 운명임을 알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듯 조용하고 체념된 눈으로 하루 종일 천정을 응시하며 누워 있기만 했다. 그의 병세는 준영이 걱정했던 대로 시시각각 나빠지고 있었다. 수연은 준영이 출근할 때 같은 차로 따라 나와 철훈의 병실에서 같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조용히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둘은 하루 종일이 지나도 거의 말이 없었고 그렇게 끔찍스럽게 힘든 침묵의 시간 속에서 같은 방에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 아무런 관계없이 따로 따로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철훈이 도착한 후 불과 십여 일 사이에 준영은 몰라보게 수척해졌다. 근무 시간을 넘긴 후에도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사무실과 철훈의 병실을 오가며 근심하고 있는 그를 보며 재클린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사람을 그의 안에서 발견해내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 대한 존경심을 더 하게 만드는 경이로운 발견이었다.

그날 밤에도 당직 근무를 위하여 병원에 도착한 재클린은 새벽에 출근했던 준영이 아직도 제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아직도 안 들어가셨나요?”

후줄근한 모습으로 멧쩍게 서먹한 웃음을 흘리는 준영에게서 재클린은 진한 인간미를 또 한 번 느꼈다.

“준영씨가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기를 버리고 혼신을 다해서 걱정하고 돌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부러운 일이에요.”

준영이 피곤한 눈을 들어 허공을 초점 없는 눈으로 응시했다.

“저도 모를 노릇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저주하며 살았는데 이제 돌이켜보니 그저 허망하다는 느낌뿐입니다.”

재클린이 두 손을 가운의 포켓에 집어넣고 등을 벽에 기대고 서서 준영의 감정을 살피다가 물었다.

“준영씨는 아직도 그 여자, 수연을 사랑하나요?”

멍한 얼굴로 허공에 눈을 주고 있던 준영의 얼굴에 괴로움이 지나갔다.

“잊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을 서로 같이 가지고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니다.”

재클린의 얼굴 뒤흘에 감추어진 감정이 잠깐 미묘하게 흔들린 것을 준영은 미처 눈치 채지 못했다.

“사랑이 죽을 때 까지 가는 병이라는 말이 맞는 모양이죠? 나를 잊어버릴 만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순수하고 존경스런 일이에요.”

말하는 재클린의 마음속에 갑자기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쓸쓸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준영이 감정을 자제한 낮은 어조로 말을 받았다.

“이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이상하게 꼬이고 비틀어진 운명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었던 그런 일이 생긴 셈이니까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재클린이 말했다.

“이제 친구가 가고 나면 그 여자를 다시 맞이하실 건가요?”

준영의 얼굴에 순간 고뇌의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러나 그는 결국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아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여자에게는 잔인한 고문이 될 것입니다. 그 여자는 지금까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몫의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온 셈입니다.”

뒤에 감추어져 나타나지 않는 재클린의 감정이 또 한 번 흔들렸다.

준영은 허탈한 표정으로 눈을 내리깔고 빈 책상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지난 일은 다 끝나가고 있고 이제 모두 훌훌 털고 저마다 자기 갈 길을 가는 겁니다. 모두 자기 몫의 짐을 지고 말입니다.”

“쓸쓸한 결말이군요, 준영씨. 아무 결말도 없는 그런 결말이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난 일을 괴로워하며 살았는데, 이번에 죽어 가는 친구를 보면서 문득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지난 일보다는 앞으로 생길 일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는 데에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 모를 노릇입니다.”

준영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던 재클린이 혼자서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 그렇군요. 이미 일어나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보다는 우리의 앞에 놓인 일들이 더 중요하군요. 알면서도 왜 잊어버리고 살았을까요? 그래요. 남편이 내 침대에서 나의 친구와 그렇게 부동켜안고 정사를 벌이던 것도 지나간 일이었는데 왜 아직도 나는 그 악몽을 지워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을까요? 이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는데.

둘은 잠시 저마다의 생각을 되새기며 말이 없었다.

“그리고 보니, 어쩌면, 결말이 없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재클린은 말하며 사무실 한 구석에 놓인 화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초는 너무 오랫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아 초라하게 시들어서 힘없이 처져 있었고 몇 개의 이파리들은 이미 죽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지나간 날에는 활짝 만개하여 화려했을 꽃잎들이 이제는 까맣게 쭈그러들어 그루터기에 볼품없이 떨어져 있었다. 마치 구원해 달라고 마지막 아우성을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물을 안 준지 오래된 모양이죠? 죽어가고 있어요.”

재클린의 시선을 따라 준영도 눈을 돌렸다. 준영은 그제야 비로소 화초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 그렇군요. 여기에 이런 것이 있었군요.”

준영은 화제가 바뀌는 것을 다행스러워하며 화초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서 보다가 누렇게 변해버린 이파리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물을 주어야 되겠어요.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야 되겠군요.”

재클린이 기대고 있던 벽에서 몸을 일으켜 준영의 옆으로 다가와 그를 보며 미소했다.

“그래요. 물을 주어요. 다시 파랗게 생기 있게 만드는 거예요. 틀림없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꽃이 또 피어나게 만들 수 있어요.”

잿빛 노을

윤금숙

새벽녘이었다. 요란하게 벨이 울렸다. 손으로 더듬어 자명종 시계의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울렸다. 전화기를 찾으라 하마터면 지난 밤 마시다 만 커피잔을 칠 뻔했다. 무거운 눈꺼풀을 치켜올려 자명종 시계의 빨간 숫자를 바라보았다. 네 시 사십 분이었다. “4” 라는 숫자가 불길했다. 한 시 넘어까지 깨어 있었으니 겨우 세 시간 정도를 잔 셈이었다.

“죄송합니다. 여기 교도소입니다. 곧 와 주십시오.”

“여보세요! 여—보…….”

이쪽에서 말을 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



서울 출생. 이화여대 국문과 졸업. 미주 크리스천문학 수필 입상. 본국 수필문학 추천완료. 미주 한국일보 여성컬럼 필진 역임. 미주 《한국일보》 문예공모 단편소설 당선. 미주 한국문인협회, 미주 소설가협회 회원.

왔다.

그곳에서는 십사 년 동안 한번도 집에 전화를 해온 적이 없었다.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아니면 일 년 남은 형량이 감해져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것은 아닐까. 설마 그런 일로 새벽에 전화를 할 리가 없지, 머리 속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커피 포트에 물을 붓고 커피를 진하게 끓였다.

운전을 하면서도 자동차 행렬만큼이나 긴 생각들이 줄을 이어갔다. 백일 번 고속도로는 바다를 끼고 있어 주변이 아름다웠다. 엘에이에서 북쪽을 향해 운전을 하고 가노라면 태평양 바다가 줄곧 옆으로 따라왔다. 처음 일이 년은 앞만 보고 운전하기에도 힘이 들었다. 그러다가 햇수가 지나갈 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의 아름다움에 눈길이 가 곤했다. 바다는 언제나 그 큰 가슴을 활짝 열고 나의 모든 것을 품어 줄 수 있다고 속삭였다. 그 소리는 점점 내 귀에 그의 목소리로 들려왔다. 그랬었지, 그의 가슴도 그렇게 넓었고 소리도 바다만큼이나 진실했었지. 그런 생각을 하니 온 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가슴이 저려왔다.

아! 바다. 이 태평양은 분명 내가 살았던 그곳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서퍼가 갈매기처럼 멋지게 미끄러지고 있었다. 한 눈을 판 사이에 서퍼가 파도에 휩싸여 잠적해버렸다. 나는 그를 찾느라고 하마터면 차선을 침범할 뻔했다.

토요일인데도 차가 밀려 삼십 마일로 가고 있었다. 사고가 났을까. 아니면 월요일이 공휴일이라 놀러들을 가는 것일까. 어둡고 우중충한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자 가슴이 답답해 왔다. 흠뻑 싸이드 밀러에 비친 옆 차에 눈길을 돌렸다. 날씬한 빨간 스포츠형 차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 여자는 블론드 머리칼을 날리며 혼자 종알대더니 깔깔거리고 웃었다. 다시 봤더니 귀에 셀폰 줄이 덩달아 흔들거리고 있었

다. 여자의 모습은 신선했다. 모두들 세상이 아름답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 같았다.

은서한테 전화를 했다. 신호음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웃음을 잃은 은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참 울려도 받지 않아 전화를 그냥 끊어버릴까 하는 찰나에 은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피곤에 젖은 은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이른 아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은서야! 미안해. 아빠 계신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나는 딸한테 전화를 할 때 언제나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하게 된다. 은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통명스럽게 말을 내뱉었다. 언제나 그랬다.

“관심 없어! 더 이상 나빠질 게 뭐가 있어. 아빠, 보고 싶지도 않아.”

작 가라앉은 은서의 목소리는 쌀쌀했다. 전화선 너머로 은서의 길게 찢어진 썰쭉한 눈이 내 가슴에 획을 그었다. 은서는 아빠에 대한 일이라면 묻지도 않았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엄마에 대한 반항이기도 했다. 자식 앞에 나는 죄인이었다.

사고가 났을 때, 은서는 열두 살이었다. 어려서부터 자기 주장이 뚜렷했고 독립심이 강했다. 시키지 않아도 숙제를 착실하게 했고 학교에서는 언제나 우등생이었다. 남편은 은서에 대해 말할 때만 생기가 났고 흐뭇해 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은서는 자기 할 일을 잘 해내 남편이 예측한대로 동부에 있는 좋은 대학엘 갔다. 지금은 그 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다.

은서를 생각할 때 나는 까끔씩 파란 하늘에 꿈을 그려본다. 은서가 결혼을 하고 남편도 출옥을 한다면, 나는 그와 같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도 사위를 볼 나이가 되고보니 며느리에게 아들을 뺏겨버

린 시어머니의 심정도 이제는 이해할 것 같다. 그곳에 가면 내 나라 내 고향이니 무엇을 한들 못 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자 희망이 생겼다. 어쩌면 그것은 남편의 꿈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는 고향집 앞마당에 감이 휘어지게 매달려있던 감나무를 가끔 꿈에서 본다고 했었으니까.

혹시 누가 알아, 한국에 가면 정신이 바로 돌아올지. 남편의 병은 풍토병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다. 내 잘못이야, 애초에 이곳으로 남편을 끌고 온 내 잘못이야. 가슴 저 아래서 또 하나의 내가 소리를 쳤다. 내 온 몸이 금세 저려왔다.

남편이 있는 곳에 다가오자 면회 때마다 일어났던 일들이 되살아났다.

그날은 첫 면회날이었다. 그곳까지는 무려 세 시간을 운전해야 했다. 높은 담만 쳐다봐도 숨이 막혔다. 면회시간에 맞추어 일찍 떠났기 때문에 한 시간을 기다렸다. 세상과 단절된 교도소 면회실의 분위기는 언제나 낯설었다.

덩치가 크고 험악하게 생긴 흑인 죄수가 수갑에 채워진 채 눈을 희번덕거리며 건들건들 나왔다. 수의를 걷어부친 팔뚝에는 문신이 옷처럼 입혀있었다. 그 순간 내 옆에 앉아 병든 닭처럼 졸고 있던 늙은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앞으로 쓸어들듯 달려갔다. 그는 노인을 보는 순간 미친듯이 소리를 질렀다. 두껍고 큰 입술에 숨어 있던 흰 이가 옥수수 알처럼 한꺼번에 와그르르 튀어 나올 것만 같았다.

“제발 오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이라면 보기도 싫단 말야, 빨리 돌아 가!”

“아들아,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착한 아들이야. 다 나 때문이다. 내가 대신 그 안에 있어야 했어. 미안해, 아들아!”

노인은 차마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옆드려 애걸이라도 할듯 엉거

주춤 다가가지를 못했다. 그는 책 돌아서 건다가 커브를 돌때 고개를 돌려 노인을 잠시 바라봤다. 그때, 아들의 눈에 눈물이 반짝 빛나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내 아들은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우. 그래서 계부를 나 대신 죽여 버렸다고. 내가 그를 죽이기 전에 내 아들은 나를 위해서 그를 죽였지, 그러니 내가 벌을 받아야되는 거 아니오. 나는 수도 없이 남편을 마음 속에서 죽였으니까. 내 아들은 길으로는 야단을 해도 속은 에미를 무척 사랑한다우.”

내 남편도 마찬가지로 거라는 말은 속으로만 우물거렸다. 아들한테 하지 못한 속말을 나에게 토해냈다. 잠시 그 노인의 모습에서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비쳐졌다. 나는 노인의 까칠한 갈퀴 같은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아챘다.

잠시 후 남편이 교도관의 안내를 받으며 휘적휘적 걸어나왔다. 남편의 모습은 정신이 홀랑 빠져버린 빈껍데기처럼 가볍게 보였다. 그 런데도 눈만은 여전히 형광빛을 발했다. 남편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상에서 도태된 사람들의 집단, 모두가 영혼이 외로워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 속에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여보! 약 열심히 먹죠?”

남편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내 눈에 강한 햇빛이 쏘인듯 눈이 시어 눈물이 고였다.

“너, 천영수 마누라 아냐! 그 새끼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남편은 면회실이 쩡쨍 울리게 소리를 질러댔다. 교도관 두 명이 양쪽에서 그의 팔을 잡았다. 남편은 그들을 뿌리치고 책 돌아섰다. 그 힘에 못 이겨 잠시 비틀거렸다. 그는 다시 환한 얼굴로 돌아서서 나에게 보란 듯이 말을 했다.

“해브 어 굿 데이! 신디.”

마치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퇴장을 하듯이 그는 내 눈 앞에서 잠시 어른거리다 사라졌다. 세 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겨우 몇 분 동안 그의 어수선했던 모습을 보고 되돌아서야 했다.

흑인노인은 엉거주춤 나를 따라나왔다. 잘 가라는 인사를 나에게 했지만 나는 노인에게 답례를 할 기력도 정신도 없었다.

그런 모습은 다음 면회 때까지 나의 마음을 끝이 안 보이는 안개 속에서 헤매게 했다.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언젠가 때가 되면 한국에 나가서 옛날처럼 다시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줘, 알았지!”

어떤 날은 말쑥한 정신으로 내게 그렇게 말했다. 그 말 한마디는 속 깊은 남편의 진심이었다. 남편의 그 말은 쓰러져가는 내 정신력에 다시 작은 불씨를 일으키게 했다. 남편한테서 도망 가고 싶었던 기억은 사라지고 자책만이 파편으로 남아 내 마음을 끊임없이 찢어댔다. 그의 눈길을 피해서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말을 던졌던 일, 그를 폐인 취급했던 일, 그가 마음 문을 닫기도 전에 나는 미리 철통 같은 자물쇠를 채워버렸던 일,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건드릴 수 없는 회한으로 남았다.

아직도 고속도로는 내 마음의 체증같이 뚫리질 않았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길을 다녔어도 이런 적이 거의 없었다. 지난 일들이 계속해서 낡은 필름처럼 끊어졌다가는 다시 이어지고 했다. 아마도 늙어서 치매가 걸린다해도 이 일들은 뇌리에 불박이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게를 인수한 지 육 개월이 되가는 어느 날 아침, 간밤에 잠을 설쳤는지 머리가 개운치가 않고 몸까지 천근만근 이었다. 남편을 먼저 세탁소로 보내놓고 나는 늦장을 피웠다. 타이레놀 두 알을 입에 넣었

을 때 전화 벨이 울렸다. 먼 곳에서 알듯 모를듯 떨리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남편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오늘따라 유난히 낮설었다.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여보! 큰일 났어. 주인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건물이 팔렸대…….” 남편의 목소리는 전화선 멀리에서 사방으로 갈라져 내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투자한 돈과 은행융자금이 머리 속에서 선명하게 숫자로 찍혀졌다. 갑자기 앞이 몽롱해지며 남편의 얼굴과 천영수의 얼굴이 두 세계로 겹쳤다. 집에서 가게는 이십 분밖에 안되는 거리였지만 지옥길처럼 멀었다.

지나간 일들이 작은 기차역들의 팻말처럼 스쳐지나갔다.

처음에 우리 부부는 한국에서 가져온 돈으로 동네 마켓을 사서 오 년 동안 권총을 가슴에 차고 열 두시간 씩 일을 했다. 그러나 좋지 않은 동네라 주위의 불량배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으니 쓸데없는 웃음만 헛되게 흘렸다. 그런 남편의 모습은 비굴하게 보였다. 결국은 끊임없는 도둑에다 불경기가 겹쳐 팔지도 못하고 돈만 날리고 문을 닫았다.

그후 일 년이 넘도록 밤청소를 하면서 낮에는 우리한테 맞는 장사를 찾으러 다녔다. 그러다가 이웃을 따라 스와밋 장사를 시작했다. 얼마안가 남편은 그것도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집어치우고 말았다. 나는 그럴 때마다 남편의 무능력에 실망했고 소심한 그의 성격에 화가 났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은인이 나타났다. 남편의 대학 선배인 천영수였다. 그는 세탁소를 세 개나 운영하고 있었다. 남편과 나는 천영수의 세탁소에서 삼 년 반 동안 월급을 받고 내 일처럼 열심히 일을 했다. 꼼꼼한 남편은 어떤 종류의 때자국도 다 빼는 기술자가 되었다.

사업 수완이 능란했던 천영수는 세탁소가 뭔지도 몰랐던 우리 부

부에게 훈련을 시킨 후 좋은 값에 가게를 넘겨줬다. 그 가게를 인수했던 날, 우리는 꿈을 다 이룬 것처럼 기뻐했다. 이 가게는 우리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고 남들처럼 잘 살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가게문은 일곱 시에 열지만 남편과 나는 여섯 시에 나와 보일러도 켜놓고 그날 끝내야 할 세탁물을 챙겼다. 저녁 일곱 시에 문을 닫고 집에 들어오면 몸은 과감치가 됐다. 저녁 밥은 아무렇게나 허기를 때우고 밀린 옷을 수선하다보면 금방 자정이 돼버렸다. 그리고는 아침 다섯 시에 일어나 점심을 대충 싸가지고 나가야 했다. 몸은 말할 수 없이 피곤했지만 단골이 차츰 늘고 수입이 올라가니 날마다 희망에 부풀었다.

세탁소에 도착하니 남편은 뒷문 쪽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의 탄탄했던 등이 갑자기 다 삭아 내려앉은 초가지붕 처럼 보였다. 남편은 내가 들어서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가게를 휘 둘러 보았다. 하나하나가 정이 들었던 곳이었다. 호세는 라디오의 볼륨을 올려놓고 엉덩이까지 흔들며 신나게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다. 그 때마다 수증기가 확 쏟아져나오니 호세의 춤추는 모습은 무대 위에서 율동하는 가수들처럼 그럴 듯했다. 낭만적이었던 스페니쉬 노래가 가슴에 닿자 푹푹 뭉쳐졌던 슬픔이 한꺼번에 찢터어리처럼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아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낙천적인 그들이 부러웠다.

천영수는 종적을 감춰버려 찾을 수가 없었다. 겨우 수소문해서 천영수의 사촌형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죄송합니다. 천영수 씨의 전화번호라도 가르쳐 주세요. 아무래도 남편이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아서예요.”

나는 애걸하다시피 사촌형이라는 사람에게 매달렸다.

“뭐예요! 아주머니, 그 죽일놈 전화번호를 알면 차라리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당장 찾아서 사기죄로 잡아 넣어버리게요. 나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때서야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다. 제계약 조건은 주인 마음대로였다. 새 주인은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며 기계를 뜯어 가지고 나가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알고보니 기계도 수명이 다해 오히려 돈을 들어서 뜯어내야만 했다. 새 주인에게 제 계약을 해달라며 우리 부부는 짧은 영어로 매달려봤다. 그러나 그들은 냉정했다.

가게를 닫은 날, 남편은 만취가 되어 통곡했다. 남편을 원망하러던 마음을 깊이 접어넣었다. 차고 한쪽 구석에는 미처 찾아가지 않은 옷들이 헌옷 가게의 옷들처럼 후줄근하게 걸려 있었다. 차라리 몽땅 도네이션을 해버리는 건데 혹시나 싶어 집으로 가져 온 것이 눈에 더 거슬렸다.

남편은 거의 매일 자명종 소리에 벌떡 일어나 습관처럼 샤워룸으로 들어갔다. 그 시간이면 자동적으로 잠에서 깨어 가게 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남편의 뒤를 밟았다. 엘에이의 아침 공기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서늘했다. 상쾌하던 아침공기가 오늘따라 웬지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남편은 발길이 닿는 대로 무작정 걸어갔다. 한참을 걸어 가더니 공원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나무 아래 시멘트 벤치가 찬 이슬에 떨고 있었다. 신문지와 맥주 깡통이 그 주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라도 있는 듯이 차가운 돌벤치에 엉덩이를 걸쳤다. 그의 훌쩍바지가 금세 젖어들겠지. 하지만 그는 아마도 한기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나무 뒤에 숨어서 그를 바라보고 있던 내 가슴에도 어느틈에 찬 기운이 옮겨와 몸이 부르르 떨렸다. 갑자기 이 미국 천지가 그와 나만 있는 외딴 섬으로 느껴졌다. 그의 어깨를 감싸줘야 된다는 마음만 있었지 한 발짝

도 땀 수가 없었다.

하루에 열 네 시간 씩 일을 하던 그는 졸지에 백수가 돼버렸다. 남편은 거실에 있는 흔들의자에 몸을 파묻고 망연히 밖을 내다보고 있는 날이 많아졌다. 그는 항상 그 의자에만 앉았다. 흔들의자는 내가 은서를 가졌을 때 남편이 사 온 첫 선물이었다. 아기 젖을 먹일 때나 안고 재울 때 앉는 편안한 의자였다. 그 의자에 앉아 있었을 때가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의자에 앉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껌지도 않은 남편의 덩수룩한 머리에 흰머리가 희끗희끗 보였다.

나는 작은 회사에서 경리 일을 봤던 경험을 가지고 백방으로 직장을 구하러 다녔다. 영어가 좀 부족해도 계산하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다. 마침 친구의 주선으로 미국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 건강 보험이 있고 우리 세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만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일을 했다.

한편 남편이 하는 일은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일밖에 없었다. 아이는 학교에서 한 블록쯤 떨어진 곳에서 차를 타고 내렸다. 깔끔한 성격의 은서에게는 껌죄죄한 차림의 아빠 모습이 창피했을 것이다. 은서는 차에서 내리면 항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갔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언제나 혼자 방에 있었다. 남편은 딸이 집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있는 듯 흔들의자에 앉아 멀거니 한곳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러다가 꺼질듯 아! 하고 숨을 내쉬며 가슴을 뜯었다. 나는 그 짧은 외마디 한숨의 뜻을 안다. 그 한숨만이 남편과 나를 일체시켰다.

남편은 사대 독자였다. 남편의 성격은 강한 것 같으면서 무척 여린 면이 있었다.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나와 결혼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도화살이 꺼 나와 결혼을 하면 아들이 요절

한다는 점쟁이의 말을 믿었다. 친구의 오빠였던 그와 나는 시어머니의 반대에 반항이라도 하듯 더 불이 붙었다. 남편의 어디에 그런 결단력이 숨어 있었던지 그는 어머니의 의사를 묵살했다. 나 또한 그런 남편의 집념에 평생을 맡겨도 좋겠다는 결론이 섰다. 아니 어찌면 나는 시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소유욕을 짓밟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몇 년 동안 시어머니는 우리를 보지 않았다.

남편은 교사직과 어머니를 뒤로하고 나를 따라 미국으로 왔다. 그런 남편이기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견뎌내리라 결심을 했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힘든 이민 생활에 점점 희미해져 갔다. 융통성 없고 내성적인 남편의 성격이 지겹도록 싫었다. 남편은 자꾸만 움츠러 들어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날마다 흔들의자에 앉아 있는 남편의 뒷모습에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내가 퇴근해 오는 시간만이라도 움직여줬으면 싶었다. 날이 갈수록 미안한 마음보다는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만이 앙금처럼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남편을 밖으로 끌어내는 길을 생각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남편과 함께 가까운 커피숍에 갔다. 앞장 서 가는 남편의 어깨에 봄별이 따스하게 내렸다. 어디선가 라일락 향기가 오랫동안 잊혀졌던 내 기억의 한자락을 애써 잡아 당기고 있었다. 남편과 처음 만나 데이트할 때의 그 라일락 향기였다.

밖에서 본 남편은 풀기 없는 삼베처럼 축 처져 보였다. 아마도 그 예겐 고등학교 수학 교사직이 가장 맞는 천직인지도 모른다. 그의 앞길을 내가 망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자 자책이 되었다.

“여보! 지나간 일 이제는 다 잊어버려요.”

나는 진심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미안해.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해볼게.”

남편은 시선을 밖으로 보내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순간 그 젖은 시선이 겁 먹은 아이의 눈처럼 슬퍼보였다. 고분고분한 남편의 태도에서 옛날 모습이 비쳐 다시 희망이 솟았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돈은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 걱정말고요.”

봄내음이 창밖에서 스며들어와 상큼하게 콧끝을 건드렸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슴이 오랜만에 술렁거렸다.

그날 후 남편은 가끔씩 외출을 했다. 할 일을 찾으러 다니는 그에게서 나는 다시 생기를 느꼈다. 얼마되지 않는 돈 관리를 나는 남편한테 맡겼다. 현금과 카드등 일체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했다. 작은 보상이라도 하듯이.

남편은 주로 오후에 말없이 나갔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가는 데도 뭔가를 하겠다는 눈치가 안 보이자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가끔씩 밤 늦게 들어왔다. 어떤 날은 새벽녘에 살그머니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남편을 찾는 한국 남자의 목소리였다. 전화를 끊고 났지만 낮게 깔은 칙칙한 음성이 마음에 걸렸다. 남편을 찾는 전화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는 잊어버릴만 할 때 같은 목소리의 남자가 남편을 또 찾았다.

“여보! 어떤 사람이 당신을 찾던데, 누구예요?”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필요 이상으로 시치미를 떼었다. 그런데 그 표정 뒤에 숨겨진 겁 먹은 눈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남편은 다시 외출을 하지 않았고 전화 벨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눈치였다.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나를 찾았다.

“당신 남편이 그 동안 카지노에 들락거린 것을 아십니까? 남편의

빛을 갇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연락하겠습니다.”

전화는 딸깍하고 끊어졌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 뒤를 돌아다봤다.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려고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냉수를 한 컵 들이켰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 시키고 그동안 남편에게 맡겼던 은행 수표, 크레딧 카드, 현금등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몇 달 사이에 남편은 비상금이었던 현금을 다 써버렸고 카드빚도 한도액까지 다 차 있었다. 그리고도 부족해 사채 빚에 쫓기고 있었던 모양이다.

“어떡하면 좋아,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도박?”

나는 들어오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무섭게 물어부쳤다.

“내가 죽어버리면 될 거 아냐.”

“그래, 차라리 죽어 버려! 죽어, 죽을 수가 없으면 제발 내 눈 앞에서 없어지기만이라도 해! 나도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이젠 끝장이라고!”

“이제야 본심이 입밖으로 나오는군. 당신이 나 죽기만을 바라는 거 나도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난 절대로 안 죽어 누구 좋으라고 내가 죽어. 안 죽는다구, 안 죽어, 안 죽어!”

남편은 나를 책 밀쳤다. 맥이 빠져있던 남편한테서 어떻게 그런 힘이 솟구쳤는지 나는 한 방에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다. 널브러져 있는 나를 남편은 발로 걷어찼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는 발광에 가까운 몸짓으로 벽에다 머리를 쿵쿵 부딪치며 울부짖었다.

“이 빌어먹을 나라, 나는 미국이 싫어, 미국이 싫단 말야. 돌아가고 싶다구, 나는 돌아가야 된다구! 내가 언제 미국 오자고 했어! 난 돌아 갈 거라구! 어머니, 어어영 엉엉!”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먼곳에서 폭탄이 터지듯 쿵하고 어렴풋이 들렸다.

“엄마! 어—엄마,”

은서의 목소리가 꿈 속에서인듯 멀리서 들렸다. 눈을 떴다. 나는 벽에 기댄 채 반쯤 누워 있었다. 목이 말랐다.

“은서야”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엉금엉금 부엌으로 기어가 물을 벌컥 들이켰다. 물이 목에 걸리더니 명치 끝이 아파왔다. 손을 오무려 가슴을 쓸어내렸다. 나는 갑자기 바보가 된듯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고 자꾸만 잠이 쏟아졌다.

도저히 직장엘 나갈 기력이 없어 휴가를 받아 며칠 동안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세 시쯤이었을까. 잠결에 어디선가 도란도란 말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불면증인 남편이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겠지 하면서 피곤이 젖은 솜처럼 눈꺼풀을 짓눌러 다시 잠에 빠졌다. 그러다가 누군가를 나무라는 것 같은 제법 큰 소리가 꿈인듯 들려 나는 잠에서 번쩍 깨어났다. 두근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응접실을 기웃거렸다. 남편은 플라스틱 바가지를 송곳으로 쿵쿵 찌르며 뭐라고 중얼대고 있었다.

“쓰레기 같은 새끼! 천 영 수! 천가 네 놈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쳤어. 너를 찾아 널거야…….”

남편은 다시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는지 바가지를 발길로 걷어쳤다.

“그래 해치우자! 쥐도 새도 모르게 해치우는 거야.”

남편은 금방이라도 그가 앞에 있는 것처럼 일어서더니 허리띠를 졸라맸다. 남편의 눈은 고양이의 파란눈처럼 빛이 번쩍거렸다. 그는 혼자 연극연습을 하듯 자기행동에 빠져 있었다. 술에 취해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섬뜩 소름이 끼쳤다.

며칠 후, 날씨가 흐린 어느 날 아침이었다. 그날은 쓰레기 수거를 하는 날이라 집집마다 쓰레통을 내놓아 길이 좀 어수선 했다. 남편은

이웃집의 초인종을 누르며 돌아다녔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와 돈을 몽땅 털렸어요.”

잠시 후 이웃의 보고로 남편은 경찰 차에 실려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다. 종합병원 정신과 응급실에는 대 여섯 명의 환자들이 침대 위에 제멋대로 덩굴고 있었다. 남편은 침대에 묶인 채 소음도 아랑곳 없이 잠에 빠져있었다. 이마에 한 일자 깊은 주름이 그의 슬픈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아 가슴이 찡했다. 어쩐 일일까. 남편의 얼굴은 마치 자기 침대에서 잠을 자듯 의외로 편안하게 보였다. 스스로를 오랏줄에 묶임으로 인생을 포기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었다.

삼 일만에 남편을 집으로 데려 왔다. 그날 다시 칙칙한 목소리의 남자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일체의 감정을 제거해버린 같은 톤의 낮은 목소리가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다. 얼굴 없는 목소리는 어디선가 나를 모니터로 감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를 만나 빚을 처리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목이 졸려 나도 남편같이 돼 버릴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며칠을 버르다가 용기를 내어 그를 만났다. 홀랑 깎아버린 문어머리에 짙은 선글라스를 낀 그는 악역을 맡은 배우처럼 그의 묶을 잘 해냈다. 그의 눈빛이나 표정은 읽을 수가 없었지만 그 자체로도 충분히 섬뜩했다.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해요. 이러다간 나도 돌 거 같으니 제발 빚 독촉만 하지 말아 주세요. 부탁이에요. 도대체 빚이 얼마나 되는 데요?”

나는 액수가 얼마인지 아는 게 무서워 목소리까지 떨려나왔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청구서를 내 놓았다. 나는 청구서에 쓰여있는 돈의 액수를 읽고 눈 앞이 캄캄해졌다. 원금 오만 불이 이자가 붙어 그

사이에 팔만 불이라는 것이다. 내 연봉을 몽땅 털어서 갚는다해도 모자라는 엄청난 돈이었다. 남편의 싸인이 꿈틀대며 아우성 치고 있었다.

순간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후한이 두려웠다. 노름빚은 목숨과도 같다는 것을 얼핏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들어와 종이를 내놓았다. 빚을 반으로 깎아 주되 일 년 안에 다 갚으라는 조건에 싸인을 요구했다. 이제는 빚까지 내 목을 졸라맸다.

남편의 우울증은 점점 심각해졌다. 남편을 그렇게 만든 천영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먼저 그를 죽일 것만 같았다. 그 생각은 남편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뿐만아니라 직장에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내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도 그토록 험하게 변하는 내 자신을 보며 몸서리를 쳤다. 나는 이 유혹에서 스스로를 구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친척 하나 없는 미국 바닥은 차갑고 냉정할 뿐 찾아갈 데라고는 없었다. 남편은 날마다 술독에 빠져 눈동자가 풀려있었다.

차츰차츰 남편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자기 방 창문을 은박지로 다 가려버렸다. 누군가가 카메라로 자기를 감시한다고 했다. 스파이가 자기 귀에다 대고 천영수가 너를 죽이려 하고 있으니 꼭꼭 숨어 있으라고 했단다. 남편이 그 말을 할 때는 너무나 심각하고 진지해 잠시 사실인 것처럼 들리기도 했다.

빨리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했다. 하루하루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몸이 아프니 의사한테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했다. 내 계획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 남편은 순순히 따라 나섰다. 나는 이미 약속이 돼 있는 의사 방

으로 남편을 때밀듯이 밀어넣었다.

날카롭게 생긴 젊은 의사는 남편의 눈을 유심히 보았다. 남편은 죄인처럼 눈길을 피해 나에게 원망의 눈초리를 보냈다.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말해 보세요?”

남편은 웃기지 말라는 식의 야릇한 비웃음을 의사의 구두 코에 보냈다. 의사의 구두는 유난히도 반짝거리며 남편의 낡은 운동화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남편은 의사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다.

“선생님! 남편은 거둬들인 사업 실패에 정신적인 타격을 너무 받아서…….”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나라도 상황을 설명해야 되겠다는 급한 마음에서 막 말을 시작하려는 찰나였다. 망연히 있던 그가 갑자기 몸을 내 쪽으로 휙 돌려 죽일 듯이 쏘아보았다.

“네가 뭘 안다고 잘난 척이야! 네가 의사야!”

의사는 나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내며 남편에게 물었다.

“증오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남편은 고개를 빼뽀름하게 끄고 계속 의사의 구두코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의사는 그의 눈동자와 표정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마도 핵심을 찌른 듯 싶었다. 나는 잠시 천영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의사는 우울증 말기에 이미 착란증세가 왔다는 진단을 내렸다. 일단 약을 복용하고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기를 권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반항하는 사춘기 아이처럼 방문을 팡 소리가 나게 닫고 들어가 버렸다. 남편의 방을 지날 때마다 문을 확 열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머리끝까지 치올랐다. 그 방문은 이미 남편과 나와의 대화를 단절시킨 장벽이었다.

남편은 종일토록 방에 있다가 밤이 되면 나를 피해 거실로 나오는

것 같았다. 거실에서는 가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중얼댔다. 어느 날 아침, 거실 벽에 사람 얼굴을 수도 없이 그려놓아 나를 놀라게 했다. 아마도 그것은 천영수의 얼굴일 것이다.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딸아이만을 데리고 어딘가로 도망쳐버리고 싶은 충동을 하루에도 수없이 느꼈다.

아직도 길은 뚫리지 않았다. 썬타바바라 시로 들어가자 차들이 더 움직이지 않았다. 일찍 집에서 떠났지만 아무래도 한 시간 정도는 늦을 것 같아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자꾸 방정 맞은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사건을 일으킨 날 새벽녘에 나는 꿈을 꾸었다.

희끄무레한 안개 속에서 검은 썰루엣이 흔들거리더니 점점 선명해졌다. 남편이 당당하게 나를 향해 걸어 오고 있었다. 그는 희죽희죽 웃으며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는 유치원생 같은 표정을 지었다. 술없는 희끗한 머리가 안개비에 젖어 착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 초라했다.

바로 그날 아침, 남편은 사람을 죽였다.

천영수가 세탁소 카운터 앞에 서 있었다.

“천영수! 꿈쩍마라.”

남편은 총을 쏘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러나 그는 동양사람이었을 뿐 천영수가 아니었다. 나는 집에 총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찾아냈을까. 마켓을 할 때 총을 사겠다는 남편과 나는 싸웠었다. 그것을 없애지 못한 것은 내 불찰이었다.

남편은 살인죄인이 되어 재판정에 섰다. 남편의 정신상태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검사와 배심원들은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곳 한국신문에는 남편의 이야기가 크게 실렸다. 그 기사에는 가정불화가 원인

이 아니었나 하는 부분도 있었다. 나는 신문을 덮어버렸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도움을 청할 사람도 주겠다는 사람도 없었다. 개인 변호사를 살 수가 없어 관선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다.

정신착란으로 인해 살인을 했다는 것이 인정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인정이 된다면 교도소 대신에 정신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된다 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필사적으로 관선 변호사에게 매달렸다. 그 무서운 교도소에서 제 정신도 아닌 남편이 혼자 어떻게 견딜가를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남편에게는 십오 년의 형이 내려졌다. 그때 남편의 나이는 한창 일할 사십 대 중반을 겨우 넘고 있었다.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선 남편을 보고 있노라면 전혀 모르는 사람 같기도 했고 살벌이 같은 정이 느껴지기도 했다.

남편의 형량이 언도되고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내게 불면증이 시작되었다. 내 귀에는 정신병, 살인, 교도소, 이런 단어만이 들렸다. 남편이 있는 곳이 상상되지 않았다. 어렸을 때 본, 퍼런 죄수복에 검은 고무신, 지푸라기로 들성들성 짜진 병거지를 뒤집어 쓴 죄수들의 행렬이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끊임 없이 나를 괴롭혔다. 노기 서린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시누이 한테만은 모든 사정 이야기를 전했다.

교도관이 나를 정중하게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 사이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리둥절해서 담당의사의 눈을 뵈히 쳐다봤다. 그리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어제부터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음식도 거부했어요. 오늘 오후에 정밀검사를 하기로 스케줄을 짜놓았는데…… 그만.”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귀에 전달되기까지 나는 멍하게 그를 바라봤다.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남편의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죽을 병이 들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무슨 일이에요? 빨리 말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에 갑자기 남편의 방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교도관이 뛰어 갔을 때는 이미 그가 벽에 머리를 수없이 부딪쳐 피가 콘크리트 바닥에 흥건했어요.”

“네? 어떻게 됐다…… 고요? 그래서요?”

“한 시간 전에 운명했어요. 죄송합니다.”

벽 시계가 맞은 편 벽에 보름달처럼 매달려 있었다. 둥근 흰얼굴에 까만 바늘이 흔들거렸다. 갑자기 내 머리 속이 텅 비어버렸다.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고 순간 머리가 멍멍해졌다. 의사의 얼굴이 가깝다가 멀어졌다 하더니 현기증이 일었다. 담당의사는 내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안아 의자에 나를 앉혔다.

잠시후 직원인듯 쇠은 표정 없는 남자가 와서 나를 남편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나는 그를 따라 휘적휘적 걸어갔다. 긴 복도가 흔들거렸다.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천장을 올려다봤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쿨러가 여기저기 툭날처럼 날카롭게 나에게 덤벼왔다.

쫓기듯 마지막 끝에 있는 문으로 빨려들어갔다. 으스스한 찬 공기가 내 몸 주위를 서늘하게 감돌았다. 온몸에 소름이 쭉 끼쳤고 머리 카락을 누군가가 위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나는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고 뒤로 몸을 뒹 돌렸다. 그냥 들어왔던 문으로 뛰쳐나왔다. 몸을 가눌 수가 없어 벽에 기대었다. 눈을 감았다. 피에 범벅된 남편의 얼굴이, 나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 같았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덮쳐오는 무서운 환상을 떨쳐버렸다.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 고속도로는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았다. 시신도 안 보고 돌아서 뛰쳐나와버린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올 때도 차가 밀렸었는데 돌아가는 길도 여전히 길이 뚫리지 않았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했다. 안개가 바다도 수평선도 삼켜버렸다. 차들이 무중력을 둥둥 떠다니는 물체처럼 보였다.

은서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두려웠다.

“은서야, 아빠가 먼곳으로 아주 떠나셨다.”

나는 은서의 셀폰에 아빠가 한국 나가셨다, 하는 메시지를 남기듯이 사무적으로 간단하게 말했다.

집 안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느낌이다. 오랫동안 전화를 끊고 살았던 시누이의 전화번호를 천천히 뒤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미안해, 어머니도 지난 주에 세상을 뜨셨어. 아마도 어머니가 오빠를 데려 갔나봐.”

“왜? 알리지 않았는데…….”

나는 갈 수도 없었지만 그렇게밖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시누이는 한 박자쯤 숨을 쉬고 말을 계속했다.

“어머니가 모든 상속을 은서한테 다 해놓았어. 오빠 장례 치루고 은서랑 꼭 나오도록 해. 고생 많이 했어.”

시누이는 뒷 말을 잊지 못한 채 울먹이고 있었다. 마지막 끝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시누이 울케 사이의 벽이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은서는 밤 열 두시가 다 되어 전화도 없이 집에 도착했다. 딸은 아무 감정 없는 사람처럼 거실로 갔다. 아빠가 항상 앉았던 흔들의자에

앉아 벽난로 위의 아빠 사진을 바라봤다. 은서는 누구에겐가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은서의 옆모습에서 남편의 얼굴이 언뜻 비쳤다. 은서는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가는 허리를 반으로 꺾었다. 얇은 어깨가 잠자리 날개처럼 파르르 떨렸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아빠를 보고 나는 창피해서 숨어버렸어. 나 어떡해…….”

나는 오랜만에 은서의 어깨를 껴안았다. 앙상한 어깨 뼈가 한 움큼으로 내 가슴에 쏙 들어왔다.

생명이 빠져나간 남편의 몸은 하나의 물체에 지나지 않았다. 남편의 얼굴은 낯설었다. 남편의 넓은 이마에는 심한 상처를 가리기 위해 서인지 화장이 덕지덕지 밀려 있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마의 붉은 주름이 화장으로 더 이상 안 보였다. 남편의 손은 다듬이돌처럼 차고 딱딱해 섬찔했다.

남편의 시신을 화장하기로 했다. 교도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화장터가 있었다. 그래도 마지막 가는 그에게 죄수복을 입혀 화장을 시킬 수는 없었다. 평소 때 좋아했던 까만 신사복을 입혔고 관도 샀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딱딱했지만 다행히도 내 눈에는 평온해 보였다.

그렇게 해서 남편을 불가마 속에 넣고 버튼을 눌렀다. 관절염이 심해진 내 손가락이 떨렸는지 불이 당겨지지 않았다. 남편의 몸을 태우기 위해 불을 내 손으로 다시 한번 당겼다. 불을 당기고 난 후 내 온몸이 불에 타는 것처럼 뜨거웠다. 냉수를 몇 컵이나 들이켰다. 이마에 식은땀이 끈적거렸다. 두어 시간 후에 오면 남편은 가벼운 한 줌 재로 내 손에 들려질 것이다.

이렇게 살고 갈 사람을 나는 무엇때문에 이곳까지 오자고 했을까. 어디서부터 빗나간 것일까. 내가 그를 절망의 구덩이로 몰아넣은 것은 아닐까. 가끔은 그가 죽어버렸으면 했다.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 한 곳이 뻥 뚫려 바람이 술술 들어왔다. 온 몸이 떨렸다. 무서웠다. 그가 세상에 살아있기만 해도 바람막이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남편과 같이 생활하지 않았던 세월이 십사 년이었지만 그는 항상 내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기다리는 동안 은서와 나는 바닷가로 나갔다. 언제였던가 남편과 나는 은서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발목까지 올라오는 파도 속으로 하얗게 웃으며 뛰어들어갔었다. 갈매기도 우리 주위를 날개짓을 하며 끼득끼득 노래를 불렀었지.

그때와 비슷한 갈매기가 젖은 모래 위를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다. 가벼운 발자국의 흔적이 모래에 쓸려 금세 사라졌다. 그 갈매기는 날지 않고 우리 주위를 맴돌았다. 다리에 난 상처가 내 마음을 찢었다.

갈매기에 눈길을 주던 딸은 바다를 향해 꺼억꺼억 소리내어 울었다. 파도는 울음을 휩쓸어 바다 가운데로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은서가 우는 데도 나는 울음이 나오질 않았다.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따금거리는 눈에 잿빛노을이 들어왔다.

수평선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던 잿빛노을은 마지막 빛을 발하며 바다로 떨어졌다.